



## 창교절 종령 유시문

오늘은 한국 현대 밀교의 개척자이신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정통밀교 총지중을 창종하신 지 4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창종 46주년을 맞아 승단과 교도 여러분



을 이루고, 법신 비로자나불의 대만다라(大曼荼羅)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반세기에 안주하기보다 앞으로의 반세기를 위해 승단과 교도 모두가 더욱 분

발하고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온 역사는 변화와 개혁으로 이어질 때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고이신(溫故而知新)에 있습니다.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는 뜻으로, 변화와 발전은 옛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옛 것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며 새롭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공존은 조화입니다.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中道)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화롭게 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종단은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창종 46주년을 맞아 옛 것을 더욱 발전시키는 원년으로 삼고,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가꾸어 놓은 밀법과 금강법계공을 더욱 어렵하게 장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발전과 변화에는 승속의 구분이 없으며, 승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본분을 다하였을 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창종 46주년을 맞아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전기(轉機)가 되기를 두손 모아 발원합니다. 창종주이신 원정 대성사의 창종정신을 이어받아 총지중의 밀법을 만천하에 흥포할 수 있도록 용맹정진 합시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흠 옴마니반메흠 옴마니반메흠.

원정 대성사의 창종정신과 가르침에 따라 오늘도 총지중의 진언행자들은 최상승의 밀법(密法)과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원정 대성사의 무량한 총지법문(總持法門)에 머리 숙여 경배(敬拜)를 올립니다.

어느덧 밀법의 작은 씨앗은 반세기에 접어들어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커다란 줄기와 무성한 잎으로 드넓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숲 속의 크고 작은 나무들은 제 역할을 다하여 조화로운 숲

과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등 9개 종단대표가 참석하였다.

불교총지중 총리원장 인선 정사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제5차 세계불교포럼은 '교류하며 서로 배우고, 중도로 원만 융화하자'라는 주제발표와 '불교와 해상 실크로드', '불교와 공익자선', '불교와 환경보호' 등을 주제로 한 분과 토론회를 열었다.

개막식에서는 중국정부를 대표한 왕취안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 회장이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쓴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위웨이궈(于为国) 푸젠성 서기는 세계불교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푸젠성을 방문한 전 세계 불교지도자들에게 환영의 인사말을 전했다.

한국불교대표 단장이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수석부회장(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이 축사를 하고 이어 발우공양 의식, 천승재(千僧齋)에서 종단협의회 부회장(진각종 총리원장 회성 정사)이 대표 발언사를 하였다.

## 세계불교포럼 중국 푸젠성에서 개최

세계 58개국 참가자들, “교류하며 서로 배우고, 중도로 원만 융화하자”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불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중국불교협회 회장(직무대행 연각스

님)과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회장 왕취안)의 주최로 1,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제5차 세계불교포럼대회를 개최하였다.

중국 푸젠성(福建省) 푸티엔(莆田市) 컨벤션센터 주회의장에 한국과 중국, 일본, 북한 등 58개국 불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서는 불교총지

## 총기 47년 금강합창제 개최

“오늘의 작은 합창제가 아름다운 세상에 부처님 법음이 가득하기를 서원”

11월 17일 (주)푸른방송 아트홀에서 불교총지중 금강합창단(단장 광노선)이 “총기 47년 금강합창제”를 열었다.

이 합창제는 불교총지중 대구·경북 교구회와 신정회 지회의 후원으로 봉행되었다. 금강합창단이 출연하여 아침서곡, 백팔연주, 향연곡을 시작으로 아크로바틱 듀엣 현대무용, 이선아 전 통무용과 범고 연주, 드림오카리나 연주의 오카리나 앙상블, 대금소리회의 궁중음악 세명산 대금합주 공연이 이어졌다.

금강합창단은 단장 광노선, 지휘 배해근, 황소영 반주 외 소프라노 20명,

알토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특별 출연한 수계사 혜음 전수는 가야금병창을 공연했다.

개천사 주교 우인 정사는 “나비의 첫 날개짓 하나가 태풍이 되듯이 오늘의 작은 합창제가 우리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가 되어서 화합과 소통의 계기가 되고 대자 대비심을 일으켜 아름다운 세상에 부처님 법음이 가득하기를 서원합니다.”며 인사했다.

광노선 단장은 “오늘이 기운으로 더욱 열심히 노래를 준비하여 음성 봉사하겠습니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11면에 계속)



### 중/조/법/어

몸과 입과 뜻으로서 상속하여 지음이라 일체 모두 내가 이제 지심참회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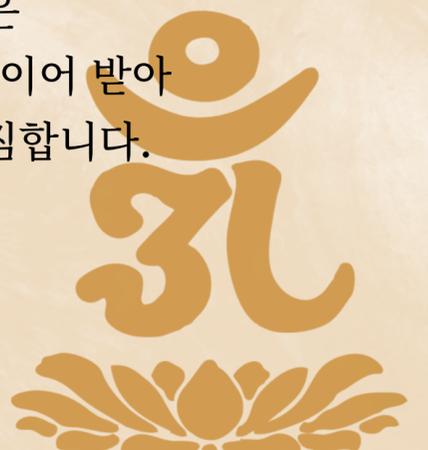
### 지/면/안/내

3면 만다라합창단, “2018 부산 불교합창제” 참가 4면 총지법장 6면 실보사 사원탐방 11면 통신원 소식

## 총기 47년 창교절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이 땅에 밀교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의뢰와 수법을 정립한 생활밀교종단 총지중은 총기47년 창교절을 맞아 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종단 중흥을 위한 대역사에 매진 할 것을 다짐합니다.

- 일시 총기47년(2018) 12월 24일
- 장소 전국 각 사원 서원당



#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취임

## “종도와의 약속 소중히, 희망의 미래불교를”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공식 취임했다. 앞서 소통을 바탕으로 한 종단 화합과 불교 대사회 역할 등에 방점을 찍은 원행 스님의 취임식에는 승가원 장애아동과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까지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서 원행 스님은 “종도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희망의 미래불교를 열겠다”는 포부를 다졌다.

조계종은 11월 13일 총본산 서울 조계사 대웅전 특설무대에서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취임법회’를 5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했다. 원행 스님 취임법회에는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등 종단 중진 스님들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관계 인사, 이기홍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각급 신도·포교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타종단을 대표한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과 타종교를 대표한 김희중 한국종교지도자협

의회 대표의장 등도 함께했다. 이날 종정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조계종 종자인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확립을 강조하면서 사부대중이 소통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화합은 상생하는 연기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화합은 아상을 버리고 하심을 취하고, 서로가 낮춤으로써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수행자들은 옹매정진으로 수행의 등불을 높이 올리고, 중생들의 삶을 위하며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행 스님은 앞서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밝힌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을 다짐하면서 한국불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원행 스님은 “제36대 총무원장 소임을 맡은 저는 종도와 국민여러분들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 그렇지만 한국불교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망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승가는 승가답게, 불자는 불자답게, 사부대중 모두가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함께 탁마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총무원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 불상·불화에 보물 넣는 불복장 의식

##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는 보유단체 인정 예고



불상이나 불화에 보물이나 서책 같은 불교 물품을 봉안하는 의식인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고려시대 이래 700년 넘게 이어진 불복장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복장작법은 세속적인 가치를 지닌 불상과 불화에 종교적 가치를 부여하고 예배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불교문화로 평가된다. 불복장 의례를 설명한 책인 조상경(造像經)이 16세기부터 꾸준히 간행됐고, 일제강점기를 지나 현재까지도 명

맥이 이어졌다. 동아시아 3국 중에서 불복장작법의 의식으로 정립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조상경도 다른 나라에는 없는 서적이다. 절차와 의례 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이고, 세부 내용마다 사상과 교리에 관한 의미가 부여됐다는 점도 문화재로서 높은 평가를 받는 요인이 됐다. 불복장작법 보유단체로는 2014년 4월 설립된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가 인정 예고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보존회에 대해 “전통 법식에 따라 의식을 정확하게 구현하고, 불교 종단을 초월해 불복장작법을 전승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단체 인정은 각계 의견 수렴 이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 삼성도 LG도 명상에 빠지다

## 직원이 행복해야 성과도 좋다... 삼성 영덕 연수원, LG 문경 힐링센터

삼성전자는 작년 5월 1000억 원을 투자해 경북 영덕군 칠보산 일대 8만 5000여㎡(약 2만 6000평)에 명상을 주제로 한 연수원을 열었다. 호흡·걷기·먹기·수면과 같은 생활 명상부터 숲·해변의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응용 명상까지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삼성 임직원에게 제공한다. LG디스플레이도 지난해 경북 문경의 한 초등학교 폐교(廢校) 부지를 임차해 명상·요가·다도(茶道)실을 갖춘 ‘힐링센터’를 열었다. 개관식에 참석한 한상범 최고경영자(CEO)는 “직원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연스럽게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올 3월에는 카이스트(KAIST)가 국내 대학 최초로 명상과 학연연구소를 열었다. 뇌파 측정, 호르몬 변화와 같은 과학적 방법으로 명상을 연구해 인공지능(AI), 뇌과학과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의 금융 중심지 월스트리트와 IT·창업 중심지 실리콘밸리를 강타했던 명상 열풍이 한국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명



상은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공유 오피스업체 위워크는 서울 종로·강남 등 주요 지점에 조용한 공간에서 명상을 할 수 있는 명상실, 웰니스(wellness)룸을 따로 두고 있다. 기업들은 발 빠르게 사업에도 명상을 접목하고 있다.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렌드는 최근 주파수와 물리적 마사지를 활용한 ‘브레인 명상·마사지’ 기능을 탑재한 안마의자를 내놨다. 통신업체 KT도 TV에 ‘명상 실행해줘’라고

말하면 400여 건의 명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가지니 명상 서비스’를 5일 내놨다. 글로벌 명상 앱인 ‘헤드스페이스’는 이용자가 이미 3000만명을 넘어섰고 마보(마음보기), 마인드브리딩, 마음챙김과 같은 국산 앱들도 차츰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에 불어닥친 명상 열풍은 불경기 속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생겨난 반(反)작용으로 해석된다.

# 동출 스님, 올해도 불교활동가 지원...15회째

## 설법연구원, 불교활동가 4명·단체 1곳에 각 200만원씩 지원



설법연구원 동출 스님은 서울 수송동 두산위브 소재 탄허강숙에서 제15회 올해의 불교활동가 지원금 전달식을 11월 27일 개최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교에 힘쓴 불교활동가 4명과 불교단체 1곳에 지원금을 전달했다. 올해의 불교활동가에는 스리랑카 수담마 스님, 민정희 사무총장(국제기후종교시네트워크), 임형군 군포교사(호국충정사), 이육빈 베트남팀장(불교여성개발원)과 단체 광주전남불교한

연대(상임대표 시각 스님)가 선정됐다. 수담마 스님은 광주 길상사 산하 아시아밝음공동체에서 활동 중이다. 스리랑카 출신으로 지난 2012년부터 전국을 돌며 스리랑카 불자들을 위한 법회를 열고, 스리랑카 불자들을 지원해 왔다. 민정희 사무총장(국제기후종교시네트워크)은 불교계 국제기구·지역 개발 관련 전문 활동가다. 2011~2015년

로터스월드 사업기획팀장, 사무국장을 맡아 해외사업을 총괄한데 이어, 현재는 종교시민사회 연대기구 국제기후종교시네트워크 사무총장을 맡아 기후변화 문제 해결 활동을 하고 있다.

임형군 군포교사는 지난 2014년부터 호국연화사와 호국충정사, 통일광복사 등 연천지역 군법당에서 각종 불사와 포교 및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육빈 베트남팀장(불교여성개발원)은 베트남 불자들이 국내 정착과 안정적인 신생활을 위한 통역 지원 등을 해왔다. 지난 2013년부터 주한 베트남 사찰 원도도량 신도회장을 맡아 베트남 불자 공동체를 이끌고, 불교여성개발원 다문화법회 실무를 맡고 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단체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 환경보호 등 다양한 생명살림 운동을 하고 있다.

올해의 불교활동가 지원사업은 동출 스님이 도반과 지인들과 함께 18년째 해오고 있다. 법인 진오한복 스님과 근본불교연구회, 삼천사신도회 등이 동출 스님과 뜻을 모아왔다.

# 성철 스님 백일법문 51주년 강독·참선 개강

## 불교인재원, 12월 7일 매주 금요일

성철 스님 백일법문 51주년을 맞아 ‘백일법문’ 공부 결사가 추진된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성철연구원(이사장 원택 스님)과 함께 2018년 12월 7일~2019년 2월 22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12주에 걸쳐 서울 종로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백일법문 공부 결사-종도가 부처님’ 강좌를 연다. 조계종 원로 고우 스님과 성철연구원 이사장 원택 스님이 증명하는 이번 결사는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상권(장격각)을 교재로 한다. ‘백일법문’은 1967년 해인총림 초대 방장으로 추대된 성철 스님이 동안거

동안 ‘불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매일 법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상좌 원택 스님이 엮은 책이다. 성철 스님은 팔만대장경의 방대함으로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후학들을 위해 백일법문하며 정견을 세우는 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강좌는 불광연구원 서재영 박사, 성철연구원 박희승 교수가 이끈다. 불교인재원에 따르면 고우 스님은 평소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은 불교입문서로서 세계 최고의 가치가 있다”며 “반복해 읽어 중도연기를 이해하면 정견이 서고 신심과 발심으로 참선을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정진 중인 현기 스님도 “‘백일법문’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다. 일찍이 법문을 접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후학들에게 일독을 권했다. 이번 강좌에서는 2019년 1월 5~6일 중추 석종사에서 1박2일 수련회도 실시한다. 1월 11일에는 김성구 이화여대 물리학과 명예교수의 특강 ‘불교의 근본 종도와 현대 과학’도 마련됐다. 한편 본 강좌는 인터넷으로도 지원된다. 홈페이지는 www.injaewon.org 이다.

# 법무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

## 대법 무죄 판결 취지 반영, 6개월 이상 수감자 대상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자 58명이 한꺼번에 풀려난다. 남은 수감자는 13명이다.

법무부는 26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징역형이 확정돼 6개월 이상 감옥살이를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심사위는 형법의 가석방 최소 요건(형기의 3분의 1 경과)을 채운 병역거부자 63명의 수사·재판·형 집행 기록을 검토한 뒤 58명을 사회봉사하는 조건으로 오는 30일 가석방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요구하는 ‘진정한 양심’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서 가석방을 결정했다. 보류된 5명은 대법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거나 불분명해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형사처벌을 가해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상 첫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1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법무부는 이들을 다른 초범처벌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교도관의 행정 업무 등을 보좌하도록 했다.

국방부가 최근 검토하는 ‘교도소에 대한 대체복무’를 진작부터 시켜왔던 법의 가석방 최소 요건(형기의 3분의 1 경과)을 채운 병역거부자 63명의 수사·재판·형 집행 기록을 검토한 뒤 58명을 사회봉사하는 조건으로 오는 30일 가석방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요구하는 ‘진정한 양심’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서 가석방을 결정했다. 보류된 5명은 대법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거나 불분명해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 입영을 연기해줬다. 이 때문에 병무청의 병역법 위반 고발도 막을 내렸고, 연쇄적으로 검찰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기소도 중단됐다. 이번엔 보류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도 가석방이 가능한 형기를 채우면 심사를 받은 뒤 대다수가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감 중인 기명 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69명인데, 법무부가 일부 병역거부자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판단을 보류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을 연기하고 신상공개도 중단한 병무청과 달리, 법무부와 검찰의 변화는 더딘 편이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진실한 양심’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대법원 선고 뒤에도 2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에 항소했다.

한편, 이미 수감 생활을 모두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 구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백준건 변호사처럼 형이 확정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사 재등록이 거부되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 이들도 많다. 대통령 특별사면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 종립 동해중 개교기념식 봉행

## 합리적 비전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기원



동해중학교의 위상을 만방에 떨치고 있는 우리 졸업생 동문들이 지금까지의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실적입니다.” 며 동해교육가족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했다. 51주년 개교기념식은 학교 연혁 소개 및 내빈 소개, 교직원 근속표창 수여, 불교총지종 장학금 수여, 학교장 기념사, 축사로 진행되었다.

11월 23일 불교총지종 종립학교인 관음학사 동해중학교가 제 51주년 개교 기념식을 해오름관에서 봉행했다. 동해중은 기념사에서 “우리 학교는 개교 51주년을 맞이하여 떨리서 동해중학교는 발전을 서원하고 동해중 교육가족의 건승을 빌어주시는 재단관계자분들을 비롯하여 학부모님 및 동

문회와 함께 새로운 동해 100년 역사의 첫 출발을 하는 개교 51주년 기념식을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편이 넘는 수많은 상장이 말해 주듯 각종 대회에서의 높은 수상 실적과 교육업적, 국내외 우수한 학교 진학,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적 자원인 전국 경향 각지에서 맹활약하며

종립 동해중학교는 1967년 11월 각학년 6학급 총 18학급으로 동해중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듬해 3월 첫 입학생을 시작으로 1988년 9월 관음학사로 발족하여 불교총지종 종립학교로써 인성교육 내실화를 통한 도덕적 인간을 육성하는 학교로 자리 매김하는 동안 학생들은 남을 위해 봉사할 줄 알고 합리적 비전을 가지고 실력을 쌓아가는 학생으로 커가고 있다.

# 통리원, 전국 지도 감사 시행

## 사원 지도 감사로 사원 운영 투명성 증대와 교화방안 자료수집에 기대

불교총지종 통리원(통리원장 인선정사)은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전국 사원에 지도 감사를 시행한다. 사원 지도 감사를 통해 총지종 전국 사원 운영 전반을 검토하게 된다. 통리원은 사원 지도 감사를 통해 사원에서

지출되는 항목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중심으로 사원 관리와 교도단체 육성, 신정회 운영 등을 점검한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종령 법공 대종사의 전국 사원 방문에 이어 통리원에서 전국 사원 지도 감사를 시행함으로써

써 그동안 미루어왔던 지방 사원 운영 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통리원에서는 앞으로 이 자료를 토대로 종단 행정업무와 교화사업 계획수립에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통리원=김평석

# 만다라합창단, 불교총지종 찬불가 3집 녹음 완료

## ‘부모은혜, 부부가 화순하며, 자성일을 지키자’ 노래



11월 22일 불교총지종 부산경남 교구 만다라합창단(단장 이상록)이 불교총지종 찬불가 3집 녹음을 마무리하였다. 찬불가 3집은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포함한 관악기와 엘토, 소프라노 합창단원들의 목소리로 구성된 챔버오케스트라로 구성되었다.

찬불가 3집에는 의식곡을 포함한 행사용 곡, 조가, 자유곡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4곡으로 음반을 만든다. 만다라합창단 이상록 단장은 “녹음하는 동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만 만다라합창단에 누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녹음하였습니다. 녹음 마무리하고 나니 보람도 느끼니다. 단원중 한 분은 이번 녹음에 동참하며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열정적으로 녹음 기간 동안 살았다’며 ‘이 같은 기회를 주어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녹음하는 동안 힘들었고 무엇보다 10명만 녹음에 참여하느라 나머지 단원들은 참여를 못했는데 다음 녹음에는 꼭 참여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다라합창단이 녹음한 찬불가 3집 많이 들어주세요.”라며 소회를 밝혔다. 찬불가 3집에는 노래와 반주곡이 함께 수록되며 12월 말일경에 발매품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 종령님과 함께 하는 미얀마 순례

## 찬란한 전통과 눈부신 불교 유적들을 간직한 은둔의 나라 미얀마 순례



불교총지종 종령 법공 대종사를 모시고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간 부처님 나라 미얀마를 다녀왔다. 승단 승직자 23명은 19일 미얀마의 상징 황금대탑 쉐다곤 파고다 순례를 시작으로 세계 3대 불교 유적지로 꼽히는 바간의 불탑, 만달레이, 해호 영험한 사찰 광도우파고다, 양곤 67미터 차욱타지 와불 등을 순례하는 일정이었다. 미얀마는 찬란한 전통과 눈부신 불교 유적들을 간직한 은둔의 나라이고 미소의 나라다. (12면 계속)

# 만다라합창단, 수인사 무료급식 보시금 전달

## 이상록 단장, “합창단원들과 조금씩 모아 수인회 무료급식에 보시”



부산 경남교구 만다라 합창단(단장 이상록)은 10월 26일 정각사 음악제에 참석한 수인사(주교 안성)에 보시금을 전달했다. 단장 이상록은 “수인사 49재 음성 봉사 갔을 때 수인회 무료급식 봉사가 자금난에 힘들어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합창단원들과 의논하여 보시금을 모아 4백만원을 무료급식에 보시하게 되었습니다.”며 뜻을 전달했다. 수인사는 매월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반찬 배달 봉사도 함께 하고 있다. 통신문 = 한미옥

# 만다라합창단, 2018 부산 불교합창제 참가

## 부산 불교합창단원들과 화합의 무대를 만든다

11월 5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산 불교합창단 연합회가 ‘2018 부산불교합창제’를 개최했다. 합창제는 부처님의 법어를 음성공양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었다.



공연에 참가한 불교총지종 만다라합창단(단장 이상록)과 범어사 합창단, 삼광사 화엄합창단, 진각종 유가합창단, 동명불원 가람소리합창단, 관음사 환희합창단, 해원정사 합창단, 미룡사 바라밀합창단,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 9팀이 참가하여 찬불가와 자유곡으로 무대를 만들었다. ‘2018 부산불교합창제’에는 부산 불교연합회 회장 경선스님, 부회장 세운스님과 금정구청장 정미영, 여성불자회 회장 왕선자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개회식에서 부산 불교연합회(회장 경선스님)는 “화엄경에 이르기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 땅에서 끊임없이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다.

찬불가는 법석을 여법하게 갖추는 장엄일 뿐 아니라 듣는 이들에게 환희심을 일으키는 법문입니다.”고 격려했다. 부산 불교합창단 연합회(단장 정인숙)은 “합창제는 불음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법회이며 수행의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의 법이 온전히 부처님께 공양

될 수 있도록 에블을 올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마지막에는 부산불교지휘자 중창단의 특별무대가 열려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다.

# 불교총지종 정각사 득락전 아미타3존불과 1,315존 원불 조성불사



정각사에서 조성 중인 득락전 불사는 아미타 3존불과 1,315존 원불에 불자들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부모, 조상 영가 왕생성불 발원불, 일체 소원성취 발원불로 재난소멸과 소원 이루세요.

2019년 2월 불사 완공 예정

불교총지종 정각사



법상인 전수의 總持法藏

# 참회가 가져다 줄 기적 2

남이 저지른 잘못의 허물을 뜯는데 힘쓰지 말고, 늘 자신을 반성하고 되돌아 봐야 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은 다 이유가 있어서 내게 온 것임을 잊지 않고, 언제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업을 짓고 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것일까?” 하고 분통을 터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서서 시야를 넓혀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화를 내고 있는 그 사람 역시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모두들 남의 허물에만 집중하는 형상입니다.

**자신의 허물은 자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법이므로, 남의 흉은 잘 보는 반면 자신의 과오는 지나치게 심상입니다. 이는 필시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타인의 흉을 볼 게 아니라, 항상 내 허물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깥의 좋고 나쁜 것에 치중할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본인의 허물을 먼저 참회하고 수행한 다음 선(善)을 행합니다. 그 참회를 통해서 자신의 업이 소멸되고 자기 자신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참회를 하면 지은 업이 소멸됩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보살님 한 분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각자님이 평소에는 관찮은 데 잠을 잘 때마다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옆에 누우면 겁을 내는 사람처럼 몸을 잔뜩 움츠러뜨리고, 살이라도 조금 닿을라치면 꿈틀꿈틀 멀어져가요.”

보살님에게는 다 큰 자식이 들어나 있었기에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각자님이 그런 반응을 보일 때마다 보살님은 여간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살님, 참회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름 정도가 지난 후 보살님이 제게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제가 스승님 말을 듣고 매일 아침 침대에서 불공을 하면서

참회를 했는데, 오히려 내가 자고 있는 각자님 옆에서 누가 나가버렸어요.”

“누가 나가다니요? 방에는 각자님이랑 보살님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저랑 각자님만 있었죠. 그런데 염주를 돌리면서 참회를 하는데 각자님 옆에서 어떤 여자 그림자 같은 게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방밖으로 나갔어요. 하도 어리둥절해서 놀라지도 않았어요. 무섭지도 않았고요.”

보살님이 짐을 꼴딱 삼키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그게 아녜요. 그 날 이후로, 각자님이 백팔십도 달라졌어요. 집안일도 곧잘 나서서 도와주고, 상냥하게 말도 잘 들어주고, 제가 사달라는 것도 흔쾌히 사주고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환하게 웃는 보살님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참회라는 것은 어떠한 업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업을 소멸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각자님이 바뀐 것입니다. 자세한 내막은 보살님의 사생활에 속하므로 생략하겠으나, 참회를 하고 나면 자신이 먼저 달라지고, 또 그로 인해 상대도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참회를 할 때는 조상님들이 지어놓은 업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잘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 살면 다른 데도 그 영향이 필시 끼치게 됩니다.**

만일 조상이 도박을 하였다면 자손도 그런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참회하고, 또 개선하려고 노력하면서 조상참회도 함께 한다면 전생에 지은 것과 지금 지은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참회불공 기간에는 본인의 참회불공 뿐 아니라 조상참회도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회불공을 마친 보살님들마다 입을 맞추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바뀌었고, 내가 바뀌니까 우리 각자님이 달라졌어요.’

‘내가 바뀌었고, 내가 바뀌니까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내가 바뀌었고, 내가 바뀌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달라졌어요.’

모든 변화의 원인은 다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바깥만 바라보면서 잘하니 못하니 평가하기 보다는 나의 내면을 유심히 바라보는 슬기를 길러야 합니다.

**타인의 흉에만 집중을 하는 것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남의 허물에만 집중하다보면 서로의 기분이 상하는 게 당연합니다. 상대의 자존심도 상처받고, 원망을 하고 받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업을 짓지 않으려면, 본인의 생각과 마음을 다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형편이 훨씬 낫고 잘 사는 시동생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요구하는 상황을 살펴봅시다.

넉넉한 상황의 시동생은 도움을 줄 때도 있겠지만 주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주야장천 요구만 받는 시동생의 입장에서는 곤란할 때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간혹 거절을 당했다고, 시동생에 대한 원망만 늘어놓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제 삼자 입장에서는 시동생을 잘 알지 못하므로 함께 욕을 하고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시동생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원망과 욕밖에 할 줄 모르는 당사자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이처럼 하나의 상황이라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해하는 정도와 생각하는 방향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을 짓지 않으려면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단속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속을 썩어 스트레스를 받지만, 나 자신이 달라지면 가족 전체가 바뀌는 걸 체감할 수 있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 믿고 참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참회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돌아보면, 저도 살아오며 해왔던 많은 생각들 하나하나가 죄다 업을 짓는 모양새였습니다. 여러 가지 쌓인 업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자세히 모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업을 소멸하다 보면 모든 것이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합니다. 짓기는 수월할지언정 받기는 정말 고통스러운 게 업입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업을 간과하고 예사로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진심을 다해서 참회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중의 전도(顛倒)를 벗어나는 해탈(解脫)의 길

칼럼 지혜의 눈

## “인간 및 중생이라는 ‘이중의 전도’ 상황 깨달아”

## “모두를 위한 불방일과 중도의 길 걸어 나가자”

한 해를 마감하며 그야말로 인생무상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을 듯싶다. 복잡다단한 일상사와 세간사에 파묻혀 세월 가는 줄 모르기도 했겠지만 어느 하나 말끔히 수습되지 못한 채 또 한해를 넘기는 것 아닌가 싶어 서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갑론을박 주장과 가짜뉴스가 난무하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공정한 정의가 실현돼야 할 법조계마저 비리 의혹으로 심판대에 섰으니 어디 믿을 곳이 있을까 싶다. 이른바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적폐를 쌓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많다. 진실로 정의란 무엇인지 의문스러울 지경인 것 같다.

요즘 유행하는 ‘내로남불’은 이런 혼돈의 상황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중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같은 행동도 자기가 한 것은 정당화하고 남이 한 것은 비판하는 모순적 상황이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

왜 우리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고 그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오락막 세란 다섯가지가 탁해진 세상이라는 말인데, 그 중에서도 견해가 탁해졌다는 견탁(見濁)이 있다. 갈등의 원인 중 큰 것이 바로 견탁인 것 같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 못하면서도 진실을 안다고 생각하고 내 주장은 100% 옳고 남의 주장은 100% 옳지 않다며 서로 부딪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자신이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과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신의 오류를 깨우치는 것을 깨달음이라는 말로 불리고 그럼으로써 갖가지 인지적, 정서적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입장이 되는 것을 해탈이라는 말로 불렀을 것이다.

새로움에 눈뜨려면 기존의 입장이 깨어져야 한다. 자기 입장에 매달리면 다른 이의 입장을 수용할 여건이 만들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입장을 떠나 불엄두를 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기존에 쌓

아온 관념과 가치관들이 무너지면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미리 겁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이중의 전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이라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입장에 매몰된 중생이라는 입장이다. 전자는 수많은 삶 가운데 호모 사피엔스라는 몸의 한계를 날 때부터 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눈으로 모양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는다지만 그것은 일정한 빛의 파장과 주파수 내의 일이다. 이는 인간 자체의 한계이다.

두 번째 전도는 자기 한계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견해들 중 자기 견해만 옳다고 믿는 것이다. 자기 견해만 옹호하고 다른 견해는 틀린 것으로 규정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한다. 즉 오온 자체가 공한데 공한 줄 모르는 것이 첫 번째 병이라면 오온에 집착하여 오취온을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의 병고를 알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의 도덕과 철학은 전자의 병을 문제 삼지 않는다. 인간으로서 그렇게 존재할 뿐이니 거기에 특별한 잘못이 있겠느냐 하는 입장인 것 같다. 그래서 주로 탐욕에 의해 오온을 오취온으로 집착하는 후자의 병을 문제 삼는 것 같다. 후자의 병만 치유해도 큰 행복을 구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불교는 오온 자체가 공함을 깨달아 인간 자체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 즉 열반으로 이끈다고 할 것이다.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돌아보면 무상한 세월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게으른 해태굴에 빠지지 말도록 자신을 챙기고 다독여야 한다. 그렇다고 지나친 노력으로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것도 과유불급이다. 불방일(不放逸)의 가르침을 되새기되 중도(中道)로써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발걸음을 부단히 옮겨야 한다.

김봉래(BBS불교방송 보도국 기자)

初發心自警文

초발심자경문

화명 문집

불교총지중 법장원

## 나를 돌아보는 수행인의 길잡이!

불교수행의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불자들의 필독서

# 초발심자경문

·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 ·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 자경문(自警文)

“〈초발심자경문〉은 불교수행의 길에 들어선 초심자뿐만 아니라 입문한 지 오래된 전문수행자도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머릿말 중에서-

화명 번역 / 불교총지중 법장원 발행  
정가 12,000원 / 169쪽

법보시 받습니다. 법보시가 (7,000원 / 10권 이상)  
문의전화 02-508-8933



원당정사  
밀교경전 읽기 20

# 六字大明陀羅尼의 象徴意味

육자대명다라니는 '관자재보살본심미묘육자대명왕진언', '육자대명왕진언' 등으로 불리고 있는 '옴 마니 반메 흠'의 여섯 자로 구성되어 있는 진언을 말한다.

이 육자대명다라니는 산스크리트어(로마자 표기)로는 Om mani padme hum이라 하고, 티베트어(로마자 표기)로는 Om Ma-ni Pe-me Hum으로 발음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옴 마니 반메 흠'으로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옴 마니 반메 흠'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옴(Om)은 대부분의 진언의 앞에 위치하는 말로써, 우주의 최초 및 최후의 소리로 우주의 모든 소리를 간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모든 소리는 옴(Om)에서 나와 다시 옴(Om)으로 환원된다고 본다. 또한 모든 언어에 옴(Om)이 내재되어 있고 편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옴은 인도의 베다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말로 '그렇다'라는 응낙의 의미로서 종교적인 의식후에 암송되는 신성한 음이었다. 힌두교에서 옴(Om)은 A-U-M의 세 글자의 합성으로 보는데 각각 만물의 발생·유지·종멸을 나타낸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A는 창조신인 브라흐마(Brahman)신의 현현으로, U는 유지신인 비슈누신(Vishnu)의 현현으로, M은 파괴신인 시바(Siva)신의 현현으로 배대하여 삼신일체의 교리에 대비하는 것이다. 밀교에서도 옴(Om)은 신성한 밀어가 되어 이

세 가지 글자는 법신·보신·화신의 삼신을 상징하기도 한다.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서는 옴(Om)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다라니의 어머니인 옴(Om)은 A-U-M의 세 글자로 나누어지는데, A는 보리심이나 법신불을 상징하고 U는 보신불을 상징하고 M은 화신불을 상징하고, 일체법이 나온 곳이며 삼제제불이 모두 이 옴(Om)을 관상하여 보리를 얻었으므로 이 옴(Om)은 일체의 다라니의 어머니라고 불린다

옴(Om)자를 관함으로써 그 공덕에 의해서 아홉 다라삼막삼보리를 얻어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옴(Om)자는 비로자나불의 진신이며 다라니의 어머니로 일체 여래와 보살이 이 옴(Om)으로부터 출생하며, 일체 법문이며 대일여래의 진신이며 일체 다라니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일체여래는 모두 이 옴(Om)자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옴(Om)은 모든 존재를 담고 있는 무한한 법계의 원리를 상징한다. 옴(Om)은 우주에 변환하여 있는 덕성 즉 우주적 법칙, 생명력, 창조력, 지혜 등을 전체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마니(mani)'는 마니주 즉 여의보주를 뜻한다. 여의보주란 원하는 데로 이루어지게 하는 보석을 말한다.

'반메(padme)'는 연꽃을 뜻하는 명사 'padma'에 처소격 접미어가 붙어 있는 말로서 '연꽃의'라고 번역되며, 인도의 신 브라흐마 또는 비슈

누의 화신으로 보고 있으나, 불교에서는 연화수 [padmapani] 보살을 상징하기도 한다.

흠(hum)은 여러 의미가 포함된 복합어로서 여러 어구가 종합되어 만들어진 글자이다. 즉 '원인'이란 뜻을 가진 hetu라는 명사의 h와 '감소시키다'라는 뜻을 갖는 과거분사의 u를 취한 채, 음편 m을 더해서 만든 글자로서 '원인을 감하다' 또는 '원인이 되는 업을 없앤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종합하면 '옴 마니 반메 흠'은 "옴, 연꽃속의 보주시여(또는 연화상보살의 보주여)! 원인(생노병사등의 고통)이 되는 업을 멸해주소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마니'는 마니주·마니보라고도 하는데, 불행 재난을 없애주고 탁수(濁水)를 청정하게 하는 덕이 있다고 하며, 특히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대로 가지가지의 진보를 내는 덕이 있는 보주를 여의보주라고 일컫는다. 불교에서는 이것은 열녀(熱惱)를 없애고 청량을 주는 덕을 지닌 지혜로 상징하고 있다.

반메는 연꽃으로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그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처럼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사바세계에 처하면서 때 묻지 않는 청정한 지혜를 상징하고, 그러면서 진흙탕을 떠나지 않고 진흙탕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사바세계를 버리지 않는 관음의 자비를 상징하고 있다.



## 성격 I

밀행사 주교 도현 정사



### 상대의 성격읽기

아홉 명이 한 팀을 이루어야 하는 야구에서 포수는 그중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다. 집안에서 온갖 곤은 일을 담당하면서 가족들을 돌보는 엄마처럼 팀 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배터리라는 별칭으로 상대팀 타자에 공을 던지는 자기팀 투수를 리드하면서 경기 내내 내야와 외야에서 수비하는 선수들을 지휘하면서 경기를 풀어가야 하는, 경기장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다. 또한 아홉 명의 선수들 중에 가장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경기가 끝날 때 까지 뛰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심지어는 날아오는 공을 글러브로 받지 못할 경우 몸으로 막기까지 해야 하는 엄청난 체력적인 부담이 요구된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을 던지는 투수와 외야와 내야에서 수비하는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을 이끌어주는 역할이다. 투수나 수비수가 실수를 하거나 그래서 상대에게 점수를 준 순간에도 기죽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파이팅을 외치면서 자기팀 선수들을 독려하는 역할을 잘 해내는 포수가 명포수이다.

그런 어느 명포수가 말하기를 한 선수가 방에 신발을 벗고 들어갈 때 가지런히 벗어 한쪽에 놓고 들어간다면 짐작할 수 있는 가장 필요로 하는 내야형 선수이고 빈자리가 있으면 어느 곳이라도 신발을 벗어 놓는 사람은 넓은 시야가 중요한 외야형 선수이며 남이 벗어 놓은 신발위에 그냥 자신의 신발을 마구 벗어놓는 사람이라면 그는 투지와 승부욕이 가장 필요한 투수형이라고 했다.

이것은 별칭 아닌 일상적인 행동으로 각 선수의 성격까지 추정해내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그 선수를 명포수로 만드는 데 일조한 것이 아닌가 짐작해본다.

개개인의 성격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는 것은 비단 야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업의 현장이나 또는 교제의 자리에

서 혹은 지인이나 가족과 이야기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성격을 대충 짐작하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거나 해서 상대에 따라 적절한 화법을 운용한다. 그래서 화법의 운용이 적절하면 대화가 잘 이루어져 희이나 교섭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잘 반영되고 지인이나 가족을 설득 시키는 일도 쉽게 해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의 성격을 잘못 짐작하거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나 회의, 설득 혹은 거래 협상을 했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 성격이란

성격(Personality)은 라틴어 "페르소나(persona)"로부터 유래된 '가면'이라는 뜻의 말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개인의 행동적 특징을 뜻하게 되었으며, 현재에도 스페인어에서는 '사람' 혹은 '인물'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격이란 어떤 특정한 사회에서의 역할 또는 행동양식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개념이라 생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행동이나 생각을 예측하려는 욕구가 있는데 그 결과 성격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남의 행동 양식을 가능한 정확히 들여다 봄으로써 자기 자신이 사회적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프롬(Erich Fromm,1900-1980)은 성격을 '인간의 자연계에 있어서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동물의 경우에는 거의 본능적으로 행동하지만 인간의 경우 본능적 행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신속히 행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본능을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했으리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계에 있어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할 경우 이에 대해 하나하나 생각하여 대처하는 대신에 한 가지 성격에 입각한 행동 양식을 갖추고 있는 결과 본능에 의지 하지 않는 자동적인 행동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법상 정사  
연명의료 11

# 울장에서 바라본 연명의료결정 II

붓다는 동료 승려들의 행동이 자비로운 결과보다 죽음을 당한 것으로 규율을 위반하였기에 추방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을 보면 규율을 어긴 동료 승려들의 처리 방법을 상세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규율을 어긴 승려들의 처리 방법은 불교 측면에서 바라보면 무엇인가에 대한 집착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

집착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가운데 사람의 겉모습인 육체는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으며, 죄를 범하여 불신의 생활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붓다는 승려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설법한 다음 2주 동안 세상과 이별하고 참선의 생활을 하였다.

승려들은 수행에 있어서 심도 깊게 열중한 나머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의 육체가 혐오스럽게 생각되었다. 이런 생각이 깊어지면서 고통에 시달리는 비구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의미 없는 삶보다는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승려들은 치명적인 자해행위를 하기도 하고 또한 다른 동료 승려들에게도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들은 바라본 공동체에서 떠난 물력가난제(勿力加難提)라는 비구에게 혐오스러운 겉모습의 육체와 의미 없는 삶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치

명적인 자해행위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청하면서 가지고 있는 의발(衣鉢)을 삼으로 드렸다. 물력가난제는 의발을 받고 비구가 치명적인 자해 행위에 도움을 주고 난 후 강가에서 사용한 도구를 세척하다가 도구에 묻은 피를 보고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 후회하는 마음을 느끼는 틈을 타 천마(天魔)가 나타나 "네가 하는 일은 공덕이 큰 것이며, 제도하지 못한 사람을 제도 시켜 주었으며, 혐오스러운 육체와 의미 없는 삶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일은 원하는 자에게 원을 성취시켜 준 것은 너무나 큰 공덕이 되는 것이다."라고 칭찬하였다. 이런 말에 물력가난제는 용기를 얻어 해탈하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내가 해탈시켜 주겠다고 하니 여러 비구들이 나타나 해탈을 희망하기에 그런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여 60여명의 이르게 되자 시체들이 즐비하고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게 되었다.

참선생활에서 돌아온 붓다는 네 개의 중대한 규율 중 세 번째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것을 설하였다. 만약 의도적으로 자기 육체를 치명적으로 자해 행위를 한다거나 겉모습의 육체가 혐오스럽고 의미 없는 삶 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라는 죽음에 대해 찬탄하면서 상대에게 죽음을 부추기는 비구 또한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

으로 하여 공동체에서 추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율법을 보면 자신을 자해 하는 행위, 의미 없는 삶을 버리겠다고 죽음에 대해 동조했을 경우까지도 율법으로 금지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불교 신도들은 무의미한 연명의료결정에 대해 개입하는 것 또한 비도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죽이는 행위와 죽음을 찬양하는 까지 금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성을 느낀다. 따라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가 연명의료결단을 행하는 것과 연명의료 결단을 하게끔 하는 사람 또한 율법에서 이야기 하는 살생계의 범주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울장에서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살생하지 말아야 하며, 스스로 치명적인 자해행위를 하거나 죽음을 찬탄으로 인해 상대방이 치명적인 자해행위를 동조하는 행위, 죽이는 것을 칭찬하거나 즐거워하는 행위 이러한 모든 행위가 죽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중생으로서의 사(死)해서는 안 된다고 정의한다.

원칙적으로 연명의료결정은 타인에 의한 죽음의 유동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때 그 시절**

**정각원 전수님 열반**  
충기 12년(1983) 12월 28일

부산 정각원 정각원 대전수  
오전 2시 열반  
빈소설치: 정각사  
영결일시: 1983년 12월 30일 9시  
영결식장: 부산시 동래구 동해중학교 교정

**총본산 신축예정 부지매입**  
충기 13년(1984) 12월 31일

장래 총본산을 이전할 계획으로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임야  
678,920평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필함.

**본원요사 1동 매입**  
충기 15년(1986) 12월 23일

본원의 요사시설 부족으로 본원 임직원의 요사 및 기로원(耆老院) 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본원 인접지(역삼동 776-6번지) 다세대 호성주택을 매입

**만보사 준공검사 필**  
충기 20년(1991) 12월 27일

대지위치: 대전시 중구 대사동  
대지: 480坪 건물: 692坪  
착공일자: 1989.5.4.  
준공일자: 1991.12.27.  
지하 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스페니쉬 기와지붕

**사원명: 단음사(檀音寺)**

- 예전사원명: 인덕(印德)서원당
- 개설일자: 충기14년(1985) 4월 9일
- 사원 개명일자: 충기 19년(1990) 7월 18일
- 예전 사원 주소: 경북 영천시 완산동 1000-25
- 현 사원 주소: 경북 영천시 서문길 33

사원제공=재단사무국

▲ 예전 단음사 모습

**범자진언**

**Va 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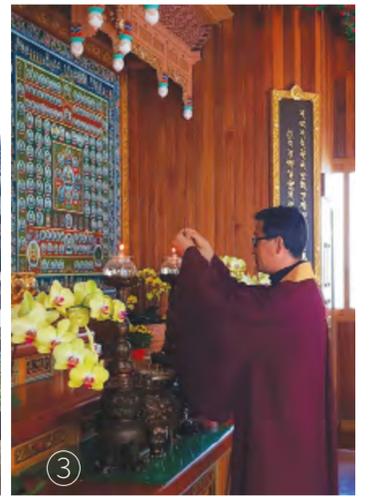
**Va 범자 쓰는 순서**

경전예문(신묘장구대다라니)  
 𑖀𑖄𑖅𑖆𑖇𑖈𑖉𑖊𑖋𑖌𑖍𑖎𑖏𑖐𑖑𑖒𑖓𑖔𑖕𑖖𑖗𑖘𑖙𑖚𑖛𑖜𑖝𑖞𑖟𑖠𑖡𑖢𑖣𑖤𑖥𑖦𑖧𑖨𑖩𑖪𑖫𑖬𑖭𑖮𑖯𑖰𑖱𑖲𑖳𑖴𑖵𑖶𑖷𑖸𑖹𑖺𑖻𑖼𑖽𑖾𑗀𑖿𑗁𑗂𑗃𑗄𑗅𑗆𑗇𑗈𑗉𑗊𑗋𑗌𑗍𑗎𑗏𑗐𑗑𑗒𑗓𑗔𑗕𑗖𑗗𑗘𑗙𑗚𑗛𑗜𑗝𑗞𑗟𑗠𑗡𑗢𑗣𑗤𑗥𑗦𑗧𑗨𑗩𑗪𑗫𑗬𑗭𑗮𑗯𑗰𑗱𑗲𑗳𑗴𑗵𑗶𑗷𑗸𑗹𑗺𑗻𑗼𑗽𑗾𑗿𑘀𑘁𑘂𑘃𑘄𑘅𑘆𑘇𑘈𑘉𑘊𑘋𑘌𑘍𑘎𑘏𑘐𑘑𑘒𑘓𑘔𑘕𑘖𑘗𑘘𑘙𑘚𑘛𑘜𑘝𑘞𑘟𑘠𑘡𑘢𑘣𑘤𑘥𑘦𑘧𑘨𑘩𑘪𑘫𑘬𑘭𑘮𑘯𑘰𑘱𑘲𑘳𑘴𑘵𑘶𑘷𑘸𑘹𑘺𑘻𑘼𑘽𑘾𑘿𑙀𑙁𑙂𑙃𑙄𑙅𑙆𑙇𑙈𑙉𑙊𑙋𑙌𑙍𑙎𑙏𑙐𑙑𑙒𑙓𑙔𑙕𑙖𑙗𑙘𑙙𑙚𑙛𑙜𑙝𑙞𑙟𑙠𑙡𑙢𑙣𑙤𑙥𑙦𑙧𑙨𑙩𑙪𑙫𑙬𑙭𑙮𑙯𑙰𑙱𑙲𑙳𑙴𑙵𑙶𑙷𑙸𑙹𑙺𑙻𑙼𑙽𑙾𑙿𑚀𑚁𑚂𑚃𑚄𑚅𑚆𑚇𑚈𑚉𑚊𑚋𑚌𑚍𑚎𑚏𑚐𑚑𑚒𑚓𑚔𑚕𑚖𑚗𑚘𑚙𑚚𑚛𑚜𑚝𑚞𑚟𑚠𑚡𑚢𑚣𑚤𑚥𑚦𑚧𑚨𑚩𑚪𑚫𑚬𑚭𑚮𑚯𑚰𑚱𑚲𑚳𑚴𑚵𑚷𑚶𑚸𑚹𑚺𑚻𑚼𑚽𑚾𑚿𑛀𑛁𑛂𑛃𑛄𑛅𑛆𑛇𑛈𑛉𑛊𑛋𑛌𑛍𑛎𑛏𑛐𑛑𑛒𑛓𑛔𑛕𑛖𑛗𑛘𑛙𑛚𑛛𑛜𑛝𑛞𑛟𑛠𑛡𑛢𑛣𑛤𑛥𑛦𑛧𑛨𑛩𑛪𑛫𑛬𑛭𑛮𑛯𑛰𑛱𑛲𑛳𑛴𑛵𑛶𑛷𑛸𑛹𑛺𑛻𑛼𑛽𑛾𑛿𑜀𑜁𑜂𑜃𑜄𑜅𑜆𑜇𑜈𑜉𑜊𑜋𑜌𑜍𑜎𑜏𑜐𑜑𑜒𑜓𑜔𑜕𑜖𑜗𑜘𑜙𑜚𑜛𑜜𑜝𑜞𑜟𑜠𑜡𑜢𑜣𑜤𑜥𑜦𑜧𑜨𑜩𑜪𑜫𑜬𑜭𑜮𑜯𑜰𑜱𑜲𑜳𑜴𑜵𑜶𑜷𑜸𑜹𑜺𑜻𑜼𑜽𑜾𑜿𑝀𑝁𑝂𑝃𑝄𑝅𑝆𑝇𑝈𑝉𑝊𑝋𑝌𑝍𑝎𑝏𑝐𑝑𑝒𑝓𑝔𑝕𑝖𑝗𑝘𑝙𑝚𑝛𑝜𑝝𑝞𑝟𑝠𑝡𑝢𑝣𑝤𑝥𑝦𑝧𑝨𑝩𑝪𑝫𑝬𑝭𑝮𑝯𑝰𑝱𑝲𑝳𑝴𑝵𑝶𑝷𑝸𑝹𑝺𑝻𑝼𑝽𑝾𑝿𑞀𑞁𑞂𑞃𑞄𑞅𑞆𑞇𑞈𑞉𑞊𑞋𑞌𑞍𑞎𑞏𑞐𑞑𑞒𑞓𑞔𑞕𑞖𑞗𑞘𑞙𑞚𑞛𑞜𑞝𑞞𑞟𑞠𑞡𑞢𑞣𑞤𑞥𑞦𑞧𑞨𑞩𑞪𑞫𑞬𑞭𑞮𑞯𑞰𑞱𑞲𑞳𑞴𑞵𑞶𑞷𑞸𑞹𑞺𑞻𑞼𑞽𑞾𑞿𑟀𑟁𑟂𑟃𑟄𑟅𑟆𑟇𑟈𑟉𑟊𑟋𑟌𑟍𑟎𑟏𑟐𑟑𑟒𑟓𑟔𑟕𑟖𑟗𑟘𑟙𑟚𑟛𑟜𑟝𑟞𑟟𑟠𑟡𑟢𑟣𑟤𑟥𑟦𑟧𑟨𑟩𑟪𑟫𑟬𑟭𑟮𑟯𑟰𑟱𑟲𑟳𑟴𑟵𑟶𑟷𑟸𑟹𑟺𑟻𑟼𑟽𑟾𑟿𑠀𑠁𑠂𑠃𑠄𑠅𑠆𑠇𑠈𑠉𑠊𑠋𑠌𑠍𑠎𑠏𑠐𑠑𑠒𑠓𑠔𑠕𑠖𑠗𑠘𑠙𑠚𑠛𑠜𑠝𑠞𑠟𑠠𑠡𑠢𑠣𑠤𑠥𑠦𑠧𑠨𑠩𑠪𑠫𑠬𑠭𑠮𑠯𑠰𑠱𑠲𑠳𑠴𑠵𑠶𑠷𑠸𑠺𑠹𑠻𑠼𑠽𑠾𑠿𑡀𑡁𑡂𑡃𑡄𑡅𑡆𑡇𑡈𑡉𑡊𑡋𑡌𑡍𑡎𑡏𑡐𑡑𑡒𑡓𑡔𑡕𑡖𑡗𑡘𑡙𑡚𑡛𑡜𑡝𑡞𑡟𑡠𑡡𑡢𑡣𑡤𑡥𑡦𑡧𑡨𑡩𑡪𑡫𑡬𑡭𑡮𑡯𑡰𑡱𑡲𑡳𑡴𑡵𑡶𑡷𑡸𑡹𑡺𑡻𑡼𑡽𑡾𑡿𑢀𑢁𑢂𑢃𑢄𑢅𑢆𑢇𑢈𑢉𑢊𑢋𑢌𑢍𑢎𑢏𑢐𑢑𑢒𑢓𑢔𑢕𑢖𑢗𑢘𑢙𑢚𑢛𑢜𑢝𑢞𑢟𑢠𑢡𑢢𑢣𑢤𑢥𑢦𑢧𑢨𑢩𑢪𑢫𑢬𑢭𑢮𑢯𑢰𑢱𑢲𑢳𑢴𑢵𑢶𑢷𑢸𑢹𑢺𑢻𑢼𑢽𑢾𑢿𑣀𑣁𑣂𑣃𑣄𑣅𑣆𑣇𑣈𑣉𑣊𑣋𑣌𑣍𑣎𑣏𑣐𑣑𑣒𑣓𑣔𑣕𑣖𑣗𑣘𑣙𑣚𑣛𑣜𑣝𑣞𑣟𑣠𑣡𑣢𑣣𑣤𑣥𑣦𑣧𑣨𑣩𑣪𑣫𑣬𑣭𑣮𑣯𑣰𑣱𑣲𑣳𑣴𑣵𑣶𑣷𑣸𑣹𑣺𑣻𑣼𑣽𑣾𑣿𑤀𑤁𑤂𑤃𑤄𑤅𑤆𑤇𑤈𑤉𑤊𑤋𑤌𑤍𑤎𑤏𑤐𑤑𑤒𑤓𑤔𑤕𑤖𑤗𑤘𑤙𑤚𑤛𑤜𑤝𑤞𑤟𑤠𑤡𑤢𑤣𑤤𑤥𑤦𑤧𑤨𑤩𑤪𑤫𑤬𑤭𑤮𑤯𑤰𑤱𑤲𑤳𑤴𑤵𑤶𑤷𑤸𑤹𑤺𑤻𑤼𑤽𑤾𑤿𑥀𑥁𑥂𑥃𑥄𑥅𑥆𑥇𑥈𑥉𑥊𑥋𑥌𑥍𑥎𑥏𑥐𑥑𑥒𑥓𑥔𑥕𑥖𑥗𑥘𑥙𑥚𑥛𑥜𑥝𑥞𑥟𑥠𑥡𑥢𑥣𑥤𑥥𑥦𑥧𑥨𑥩𑥪𑥫𑥬𑥭𑥮𑥯𑥰𑥱𑥲𑥳𑥴𑥵𑥶𑥷𑥸𑥹𑥺𑥻𑥼𑥽𑥾𑥿𑦀𑦁𑦂𑦃𑦄𑦅𑦆𑦇𑦈𑦉𑦊𑦋𑦌𑦍𑦎𑦏𑦐𑦑𑦒𑦓𑦔𑦕𑦖𑦗𑦘𑦙𑦚𑦛𑦜𑦝𑦞𑦟𑦠𑦡𑦢𑦣𑦤𑦥𑦦𑦧𑦨𑦩𑦪𑦫𑦬𑦭𑦮𑦯𑦰𑦱𑦲𑦳𑦴𑦵𑦶𑦷𑦸𑦹𑦺𑦻𑦼𑦽𑦾𑦿𑧀𑧁𑧂𑧃𑧄𑧅𑧆𑧇𑧈𑧉𑧊𑧋𑧌𑧍𑧎𑧏𑧐𑧑𑧒𑧓𑧔𑧕𑧖𑧗𑧘𑧙𑧚𑧛𑧜𑧝𑧞𑧟𑧠𑧡𑧢𑧣𑧤𑧥𑧦𑧧𑧨𑧩𑧪𑧫𑧬𑧭𑧮𑧯𑧰𑧱𑧲𑧳𑧴𑧵𑧶𑧷𑧸𑧹𑧺𑧻𑧼𑧽𑧾𑧿𑨀𑨁𑨂𑨃𑨄𑨅𑨆𑨇𑨈𑨉𑨊𑨋𑨌𑨍𑨎𑨏𑨐𑨑𑨒𑨓𑨔𑨕𑨖𑨗𑨘𑨙𑨚𑨛𑨜𑨝𑨞𑨟𑨠𑨡𑨢𑨣𑨤𑨥𑨦𑨧𑨨𑨩𑨪𑨫𑨬𑨭𑨮𑨯𑨰𑨱𑨲𑨳𑨴𑨵𑨶𑨷𑨸𑨹𑨺𑨻𑨼𑨽𑨾𑨿𑩀𑩁𑩂𑩃𑩄𑩅𑩆𑩇𑩈𑩉𑩊𑩋𑩌𑩍𑩎𑩏𑩐𑩑𑩒𑩓𑩔𑩕𑩖𑩗𑩘𑩙𑩚𑩛𑩜𑩝𑩞𑩟𑩠𑩡𑩢𑩣𑩤𑩥𑩦𑩧𑩨𑩩𑩪𑩫𑩬𑩭𑩮𑩯𑩰𑩱𑩲𑩳𑩴𑩵𑩶𑩷𑩸𑩹𑩺𑩻𑩼𑩽𑩾𑩿𑪀𑪁𑪂𑪃𑪄𑪅𑪆𑪇𑪈𑪉𑪊𑪋𑪌𑪍𑪎𑪏𑪐𑪑𑪒𑪓𑪔𑪕𑪖𑪗𑪘𑪙𑪚𑪛𑪜𑪝𑪞𑪟𑪠𑪡𑪢𑪣𑪤𑪥𑪦𑪧𑪨𑪩𑪪𑪫𑪬𑪭𑪮𑪯𑪰𑪱𑪲𑪳𑪴𑪵𑪶𑪷𑪸𑪹𑪺𑪻𑪼𑪽𑪾𑪿𑫀𑫁𑫂𑫃𑫄𑫅𑫆𑫇𑫈𑫉𑫊𑫋𑫌𑫍𑫎𑫏𑫐𑫑𑫒𑫓𑫔𑫕𑫖𑫗𑫘𑫙𑫚𑫛𑫜𑫝𑫞𑫟𑫠𑫡𑫢𑫣𑫤𑫥𑫦𑫧𑫨𑫩𑫪𑫫𑫬𑫭𑫮𑫯𑫰𑫱𑫲𑫳𑫴𑫵𑫶𑫷𑫸𑫹𑫺𑫻𑫼𑫽𑫾𑫿𑬀𑬁𑬂𑬃𑬄𑬅𑬆𑬇𑬈𑬉𑬊𑬋𑬌𑬍𑬎𑬏𑬐𑬑𑬒𑬓𑬔𑬕𑬖𑬗𑬘𑬙𑬚𑬛𑬜𑬝𑬞𑬟𑬠𑬡𑬢𑬣𑬤𑬥𑬦𑬧𑬨𑬩𑬪𑬫𑬬𑬭𑬮𑬯𑬰𑬱𑬲𑬳𑬴𑬵𑬶𑬷𑬸𑬹𑬺𑬻𑬼𑬽𑬾𑬿𑭀𑭁𑭂𑭃𑭄𑭅𑭆𑭇𑭈𑭉𑭊𑭋𑭌𑭍𑭎𑭏𑭐𑭑𑭒𑭓𑭔𑭕𑭖𑭗𑭘𑭙𑭚𑭛𑭜𑭝𑭞𑭟𑭠𑭡𑭢𑭣𑭤𑭥𑭦𑭧𑭨𑭩𑭪𑭫𑭬𑭭𑭮𑭯𑭰𑭱𑭲𑭳𑭴𑭵𑭶𑭷𑭸𑭹𑭺𑭻𑭼𑭽𑭾𑭿𑮀𑮁𑮂𑮃𑮄𑮅𑮆𑮇𑮈𑮉𑮊𑮋𑮌𑮍𑮎𑮏𑮐𑮑𑮒𑮓𑮔𑮕𑮖𑮗𑮘𑮙𑮚𑮛𑮜𑮝𑮞𑮟𑮠𑮡𑮢𑮣𑮤𑮥𑮦𑮧𑮨𑮩𑮪𑮫𑮬𑮭𑮮𑮯𑮰𑮱𑮲𑮳𑮴𑮵𑮶𑮷𑮸𑮹𑮺𑮻𑮼𑮽𑮾𑮿𑯀𑯁𑯂𑯃𑯄𑯅𑯆𑯇𑯈𑯉𑯊𑯋𑯌𑯍𑯎𑯏𑯐𑯑𑯒𑯓𑯔𑯕𑯖𑯗𑯘𑯙𑯚𑯛𑯜𑯝𑯞𑯟𑯠𑯡𑯢𑯣𑯤𑯥𑯦𑯧𑯨𑯩𑯪𑯫𑯬𑯭𑯮𑯯𑯰𑯱𑯲𑯳𑯴𑯵𑯶𑯷𑯸𑯹𑯺𑯻𑯼𑯽𑯾𑯿𑰀𑰁



사/원/탐/방

보배로운 열매가 가득한, 실보사



▲ 사진 = ① 예전 실보사 ② 실보사 ③ 주교정사 훈향 정공

사람 냄새 가득한 곳에 자리 잡은 실보사(實寶寺)

실보사



▲ 실보사 약도

총기 7년, 울산시 신정동 2층의 주택을 임차하여 '정경(正鏡)서원당'이라는 이름으로 포교를 시작하였다. 오직 올바른 것을 비추며 좋은 본보기가 되라는 의미의 작명이 아닐까 싶다. 이후 총기 8년 울산시 신정동 강남 아파트 101호로 불단을 이설하였으며, 총기 10년 울산시 태화동에 실보사 신축 예정지를 매입하였다. 총기 12년 신축이 완공되어 그해 11월 현공불사를 봉행하였다. 실보사는 열매 실(實)에 보배 보(寶)자를 사용한다. 실보사는 울산시 태화동 31-21번지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곳은 시장이기도 하다. 장이라도 서는 날엔 전국에서 몰려온 상인들이 새벽부터 난장을 이룬다.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온갖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상인들의 자리다툼하는 소리, 가격을 외치는 소리, 가격 흥정하는 소리, 크게 웃는 소리, 아이의 울음소리 등 우리네 세상살이를 함축시켜 놓은 또 하나의 작은 세상인 것이다. 이 왁자지껄하고 사람냄새 가득한 이곳에서 대문을 넘고 계단을 올라 서원당으로 들어서면 부처님의 가피를 느낄 수 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 하고 신기한 경험이다. 마음의 고요를 찾고 평화를 찾아야 할 사원에서 주위에 소음이 가득하면 꽤나 불편할 거 같다는 질문을 하니, 보현 전수는 "오�히려 시장 속에 위치한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생각합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장을 지나며 보는 온갖 것들이 장터보다 높이 위치한 조용하고 깔끔한 서원당에 들어서면 말끔히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사

원에 오는 날엔 나의 생활을 장에 빚대어 살펴보면 명쾌히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음이 집중력이 쉽게 깨어질수도 있기에 더욱더 자신을 단속하며 수행할 수 있습니다."라며 뜻밖의 대답을 주었다. 실보사는 최근 대문 공사를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외부인이 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외관을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시장 골목에 있다 보니 절에 쉽게 발을 디디기가 좋다. 최근에도 누구의 제도가 아닌 스스로 제도되어 오는 보살이 생겼다고 한다. 장을 지나다 우연히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석하여 법회와 대중공양을 함께 하였는데, 이후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하고 실제로 찾아온 보살이 있다. 이렇게 가까이 절이 있음에 반가웠고 언제든지 올 수 있어서 좋으며 늘



▲ 사진 = ④ 실보사 서원당 ⑤ 기념 사진 ⑥ 정진불공

한결 같은 자세로 집중 수행하는 교도들

밝은 모습으로 서원당에 나오고 있다. 현재 많은 베테랑 보살들이 그 신규 보살을 도와주고 알려주며 또 다른 신규 보살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울산의 태화강

태화라는 이름은 자장율사의 일화에서 시작된다. 선덕여왕 5년 당나라에서 수행하던 자장율사는 중국의 산중 반도에 있는 태화지를 지날 때 신인으로부터 왜구의 침입을 물리치고 왕업을 발전시키려면 신라로 돌아가 황룡사에 9층 석탑을 세우라는 말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중 울산의 사포라는 포구에서 쉬게 되었다. 그는 이 자리에 중국 태화강가의 신인을 기려 절을 세워 태화사라 하였으며 절의 이름을 따서 강의 이름도 태화강이라 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태화는 신라가 태화지룡의 복을 빌며 외적의 위협을 물리치고 장차 삼국을 통일하려는 강한 의지와 야심이 담긴 호국불교에서 얻어진 이름이다.

실보사 사람들

실보사의 신정회 회장인 김시분 보살은 "84년도에 입교하였습니다. 새해불공 때 서원당 문을

열고 들어오니 사람도 많고, 평소 알고 있던 불교의 이미지와 많이 다른 모습이 조금은 낯설지만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호기심으로 옴마니반메흠을 입으로 외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현재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8시에 퇴근하면 서원당을 찾아 두 시간 불공을 하였습다. 진언을 외우지 못해 벽에 걸린 진언을 보고 따라 읽으면서 서투르게 불공을 드렸지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불공을 게을리 할 수는 없습니다."라며 입교 당시를 회상하였다. 실보사의 자랑을 부탁하는 질문에 "어느 사원이든 다 그렇겠지만, 보살님들 심성이 그리 울긋불긋 수가 없습니다. 나이대가 꽤 높은 편인데도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시는 보살님들이 대부분이라 시간을 지키기 힘들텐데도 늘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면 저 역시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스승님들은 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저는 그것이 참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두 분 다 젊으시니까 어느 방면으로든 몸을 아끼는 일이 없으세요."라며 미소를 띠고 대답했다. 불가지 부회장은 공양 준비 또한 불공이라는 생각에 다른 분들을 위한 정성의 공양을 준비한

다고 한다. 매 주 자성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공양간을 지키는 모습에 실보사 주방이 든든하다. 부회장을 옆에서 돕고 있는 조순애 총무도 사원 안팎의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 빛자루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에서 들어난다. 두 분 다 공양 준비하는 내내 시종일관 웃음을 자아내며 준비하시니 실보사의 공양은 맛 있을 수밖에 없다. 법회 후 주방을 찾은 보살들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맛있게 공양한다. 이것저것 서모에게 챙겨주는 모습이 정답다. 실보사는 매 계절마다 함께 나들이를 나선다고 하니 그 여행의 즐거움이 그들의 웃음소리에서 묻어난다. 2016년도에 태풍 차바로 인해 태화강이 범람하여 근방의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실보사 또한 1층이 물에 잠겨 사원차량과 보관중이던 사원의 물품을 잃었지만 2층의 사택과 3층의 서원당은 큰 피해 없이 넘어갔다. 보현 전수는 "당시 종단과 주변의 도움과 관심으로 실보사는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 걸린 긴급 복구 때 보살님들의 연세가 적은 편이 아닌지라 쉬이 팔을 걷어붙이고 이웃에게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총지종내 '봉사단체' 구성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보현 전수에게 보살님들과의 관계를 물어보니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어린 편이다 보니,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스승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것이 송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제가 딸처럼 보살님들께 엄마에게 이야기하듯 털털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보살님들이 다들 모나지 않고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또 나쁜 대로 등글등글한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 참 좋습니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앞으로 사원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싶은지 묻자 보현 전수는 "시장 중심에 있는 장점을 더 활용하고 싶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슬쩍 실보사를 보고 지나가거든요. 그 시선들을 놓치지 않고 조금 더 긴 인연으로 만들 방법을 모색해보려고 노력중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시선에 그치지 않고 대문을 넘어 서원당으로 들어 오길 바랍니다."라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바람을 묻자 "가족제도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자녀를 제도하길 서원합니다. 사원을 찾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도합니다."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취재=박설라

주교 : 덕광 정사  
주소 : (681-818) 울산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31-21)  
전화 : 052-244-7760

지상 설법

삼위일체



실보사 주교 덕광 정사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은 불교에서 먼저 사용한 단어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으로 부처는 둘이 아닌 한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삼위는 한자로 삼위(三位), 자리 위치를 사용하지만, 오늘 저는 행위(行爲)한다는 뜻인 활위를 사용해서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삼위일체라는 것은 결국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세 가지 행위가 하나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하나로 모여지는 것이 바로 공덕을 이루고 서원을 성취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삼위의 첫째로는 끝없는 노력, 두 번째로 간절하고 절실한 믿음, 마지막으로 지

극한 정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됨으로 업장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지공덕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삼위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몸과 입과 뜻으로 지어야 합니다. 복업을 짓고 선업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업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실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받는 것이 됩니다. 많은 교도님들도 이러한 삼위일체를 통하여 공덕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극락과 지옥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따라 내가 극락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내가 짓고 있는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실천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종교를 믿지 않아도 나의 행동이 선하고 올바르다면 충분히 극락으로 갈 수 있지만,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진지하게 믿고 기도하여도 행위가 올바르지 않다면 극락에 갈 수도, 공덕을 얻을 수도, 깨우칠 수도 없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는 행위이지 종교, 태생, 지위, 권력, 부와 같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렇다면 현재의 나는 지금 몸과 입과 뜻으로 극락의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의 표를 끊었는지 되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지은 선악의 행위는 반드시 그 과가 따라오는 법입니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행위는 그대로 이 법계에 저장되

고 축적되어 언젠가는 그림자 따르듯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악업을 지었으면 최대한 빨리 그 악과를 받는 것이 좋고, 선업을 지었으면 최대한 늦게 그 선과를 받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선악의 행위는 저장되고 축적되어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괴로운 일이 생기면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동시에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서원합니다. 하지만 인과의 이치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괴로운 일이 생기면 지난 악업의 고과를 빨리 받아 없앨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즐겁고 기쁜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날마다 복 짓는 일을,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서원합니다.

자고로 인간이라는 것은 괴로우면

괴로워서 싫고, 즐거우면 즐거움이 언제 끝날지 몰라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혜로운 사람은 괴로우면 내가 지은 업을 지금 받아 녹여서 좋고, 즐거우면 선업의 고과를 받아서 좋다고 생각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짓고 노력하는 행위에 간절한 믿음과 정성이 깃들어서, 삼위일체가 되어 부처님의 가피공덕으로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도를 구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정성을 다하라. 정성이 서로 감응하면 능히 도과(道果)를 얻는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하라. 만일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레 구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다.” 『잡보장경』 기도하는 일도, 깨달음을 얻는 일

도,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모두 정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일체유심조’라 하였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은 정성이라는 양분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에 지극한 정성, 끝없는 노력, 절실한 믿음이 더해지면 법계는 진정으로 서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악업을 녹이고, 공덕을 이루고, 바람을 성취하는 데는 몸과 입과 뜻으로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노력과 간절한 믿음 지극한 정성이 세 가지가 일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접목을 해보았습니다.

보살님들도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불공하는지 돌아켜보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늘 용맹정진 하시길 바라며, 성도합니다.



불각지 교도

내 인생의 수많은 관세음보살님

결혼 전에 건강이 아주 나빴습니다. 제 인생에는 아이가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자식과의 인연이라는 것이 저의 의지로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루지 못한 인연으로 괴로워하는 저를 친정어머니께서 가엾게 여기어 총지종 입교를 권유하셨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염주만 손에 달랑 쥐고 절에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그런 하루들이 지나가면서 저의 그 가뻐한 마음이 정각원 전수님의 설법으로 무게를 달리 해갔습니다. 전수님의 쉬운 설법으로 부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고 가슴속에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총지종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 뜻밖의 임신 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지종 수행의 시작으로 그토록 원했던 아이와의 인연을 부처님께서 이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쁨도

잠시 달이 차갈수록 제 몸이 워낙 약한 지라 위험할 수 있으니 병원에서는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점차 절에 나가는 횟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전수님께서 제게 다가와 말씀해주셨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순산하시려면 행사도 많이 나오시고 염송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짐짓했던 마음을 후련하게 털어버리고 절에 더 꾸준하게, 성실하게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말릴 것이 뻔하다 생각하여 조금 무모하지만 검진 날에도 병원엘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승님과 부처님만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저는 무탈하게 첫째 아이를 순산하였습니다.

이후 둘째 순산 후에는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은 집 밖으로 나돌기만 하였습니다. 원망도 하고, 싸움도 하고, 어느 순간엔 잠깐 잠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는 것은 없었고, 결국 저는 부처님의 도움으로 제 안에서 답을 찾아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과거 전생의 업보라는 것을요. 그런 생각이 들자 참회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생에 내가 닦을 수 있는 만큼은 다 닦고 가자. 그래서 다음 생은 이번생보다 훨씬 불만족만 낮게 살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 오직 이 삶을 인욕과 하심으로 견디고 버티어내자. 그 뒤 저는 남편에게 정성을 다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을 미워하면 자식이 바르게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인내로 삶을 견디던 어느 해에, 남편이

변한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남편도 느꼈습니다. 남편이 제게 말하길 아이들이 대학을 다 보내려면 우리 함께 작은 포장마차라도 해야 할 텐데, 하며 제 손을 꼭 잡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변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해에 돌아갔습니다. 지금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들을 준 그 이기에 가는 길엔 그저 고마움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인내와 참회와 기쁨을 안겨준 관세음보살이었습니다.

제 인연에는 관세음보살님이 참 많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하여 전전 금궁하다 우유배달 일자리를 얻게 되었는데 자전거를 배워야했습니다. 서원당에 들러 염송을 한 뒤 이웃에서 자전거 한대를 빌려 동네 초등학교를 찾았는데 초등학교생이 자전거에 끌려 갈 광경이 저를 도와주어 금세 배우

게 되었습니다. 과자값을 쥐어주며 고마움을 표했는데 필히 우리 동네 학생 인지라 다시 만날 것 같았으나 그 뒤로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그 학생 덕에 자전거를 몰면서 두 아이를 열심히 기르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명의 감사한 인연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정리를 함께 도와준 친구입니다. 치매가 오셔서 몸져누워 계신지 꽤 되신 시어머니의 49일 불공을 마치는 날 어느 때와 같이 고이 주무시는 모습에 아무 생각없이 그 옆을 지키고 있는데 친구가 연락도 없이 찾아왔고 시어머니를 뵈고는 저의 등을 치며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있으니 선뜻 자신의 상조를 내어주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 시어머니를 편히 보내드렸습니다. 이 인연들 말고도 시

장에서 좋은 물건을 싸 가격에 주는 상인, 비가 몹시 오는 날 정류장이 아님에도 집근처에 세워준 버스기사, 불단에 놓을 국화화분 두개를 들고 가는 저에게 다가가 서원당 불단위에까지 놓아주고 출연하듯 간직한 청년 등등등 셀 수조차 없는 인연들 덕에 저는 신명나게 수행정진중입니다.

저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짓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고 나서 지나온 생을 돌아켜 보니, 가는 곳마다 많은 관세음보살을 만났고 좋은 스승님들을 만나서 늘 숙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교도님들도 부처님의 공덕으로 수많은 관세음보살을 만나 인생의 고난역경을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제 인생에 헤아릴 수 없는 도움을 주신 모든 관세음보살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리라이팅=황보정미



조순애 교도

어머니와의 화해

저는 일찍이 6.25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홀로되신 어머니는 삼남매를 키우려 했기에 점점 억척이 되어가셨고, 자식 교육에 있어서는 몹시 엄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집안에서 자식들을 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게는 어머니가 호랑이처럼만 여겨졌습니다. 어떤 때에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거리를 두려는 저를 보며, 어머니는 더더욱 저를 꾸짖고 돌아붙였습니다. 이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취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왕래가 뜸해졌고 어린 마음에 좋기까지 했습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둘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 결혼을 미루던 중 아기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시곤 제게 불호령을 내리셨고 병원에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으로 버티면서 아이

를 낳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또 그렇게 출산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뜻을 거역한 저를 더 이상 보려고 하지 않았습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어머니를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이의 아빠는 아이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이보다 더 열심히 살 수는 없을 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녕 저를 다시 보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하지 않았고, 그렇게 자그마치 8년 동안 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힘이 부칠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했고 원망하며 미워했습니다. 그 힘으로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아이를 돌보며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 눈을 딱 감고 어머니에게 아이를 봐달라는 도움을 청했습니다. 8년만의 연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창고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아쉬운 입장은 저였기에 여러 차례 부탁을

거듭 드렸고 결국 어머니의 도움을 받게 되어 한시름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집에 가기 싫어 청얼거리는 아이를 보노라니 어머니가 미웠습니다. 어머니 역시도 저를 미워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감정이 느껴질수록 더 깊이 원망하였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어머니에 대한 원망의 두께는 얇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살던 중 지인의 소개로 총지종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 지금까지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사원에 와서 청소를 하고 보살님들을 돕고 대중불공 시작되기 전에 총지종보와 위드 다르마를 펼치고 읽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총지종보에서 어머니에 대한 신행담을 읽게 되었습니다. 불현듯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원망과 미움에 등 돌리고 있던 어머니와 안쓰러운 아버지 불공을 해 드

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전수님과 상의하여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로 챙기는 식으로 49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49일 매일 두 분 뜻을 따로 하여 불공과 회사를 했습니다. 피치못할 일이 생겨 못하게 되면 고평로 그 다음날 무조건 해 드렸습니다. 회향일에 맞춰 법회를 가게 되었고 부모님도 함께 법회에 참석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비록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법회를 위해 걷는 회비도 저를 포함해 3인분으로 냈습니다. 각각의 나들이옷과 여비도 계산해서 회사를 했습니다. 그저 신이 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 내리거나 휴게소에 들릴 때마다 빈 손짓으로나마 부모님을 모시는 시늉을 하며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하는 상반회 회향 법회를 마쳤습니다. 생전 두 분의 금액이 매우 좋았는데, 이렇게 함께 나들이를 다녀왔으니 참 좋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집이 전과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섭도록 짙게 괴롭히던 벌레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몹서리 치게 소름돋는 벌레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는데 그 벌레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생각에 지켜봤는데 근 일주일간 단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고도 기쁜 마음에 전수님을 불렀고 벌레가 보이지 않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벌레를 얼마나 혐오하는지 아셨던 전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제 마음에서 그 두려움이 물러간 것이라 말씀해주셨습니다. 호랑이처럼 무서운 어머니에 대한 미움도 같이 말입니다. 어머니와의 화해에 있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분명 어머니를 위한 49재였다고 생각합니다. 49재를 마치는 날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뒤돌아 누워계시다가 갑자기 저를 향해 몸을 돌리고는 매몰차게 쏘아붙였습니다.

“고맙다!” 변함없이 쌀쌀맞은 모습이었지만 어머니의 포근한 진심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불공을 할수록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불현중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지혜도 밝아져서, 제가 하는 결정은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불공은 아이에게도 영향이 간 것 같습니다. 할머니를 그토록 꺼리던 아이가 먼저 할머니 산소에 가야하지 않겠느냐며 저를 부추깁니다.

조만간 어머니와 아버지의 49일 불공을 각각 최소 두 번씩은 더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다잡으니 이보다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와 종종 인연에 얽혀있다면 가장 괴로운 이는 당사자일 것입니다. 총지종 안에서 좋지 않은 감정의 매듭을 풀고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리라이팅=박설라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철학박사)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문화와 생활』 (23)

# 염(念)과 밀교수행

## 불교에서의 염(念)

염(念)은 '생각하다'는 뜻 외에 '외다', '삼가하다'라는 뜻도 있다. 그리고 염자가 들어 간 술어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개념(概念)이라는 말을 들 수 있다. 국어사전에는 하나의 사물을 나타내는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종합하여 얻은 관념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관념이라는 술어도 있다. 관념(觀念)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관한 견해나 생각을 말한다. 또 이념(理念)이라는 단어도 있다. 한 시대나 사회 또는 계급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관념, 믿음, 주의(主義)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영어의 이데올로기에 해당한다. 신념이라는 말도 있다.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다. 그리고 통념(通念)이란 말도 있다. 일반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을 뜻한다. 이렇듯 염(念)은 생각과 관련된 술어로 널리 쓰이고 있다.

불교에서 염(念)은 어떠한가. 매우 중요한 술어로 쓰이고 있다. 수행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그 용례(用例)를 살펴보자. 먼저 팔정도의

정념(正念)을 들 수 있다. 정념은 바른 관찰·통찰을 의미한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불교개론서 가운데 정념을 바른 기억, 바른 생각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아주 잘못된 번역이다. 바른 생각은 팔정도 가운데 정사유(正思惟)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념을 바른 생각이라 번역되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번역이 아니다.

정념은 바른 관찰·통찰이라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염(念)에 해당하는 팔리어가 사띠(sati)이기 때문이다. 즉 사띠(sati)는 어떤 대상을 관찰·통찰하는 것인데, 이를 한문으로 염(念)이라고 번역한 것이다. 이 염(念)을 알아차림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용례로서 사념처(四念處)가 있다.

사념처는 초기불교의 37도품 수행법 중 하나로서 네 가지의 사띠(sati) 수행을 말한다. 사띠(sati)를 염(念)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래서 사념처라 한다.

이 사념처의 염(念)을 남방불교, 팔리어에서는 사띠(sati)라 하고, 영어권에서는 mindfulness라 번역하고 있다. 마음챙김의 뜻이다. 그래서 마음챙김 또는 알아차림으로 많이 번역하고 있다. 또 깨어있음·주의깊음·

마음집중·마음지킴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사념처는 신념처(身念處), 수념처(受念處), 심념처(心念處), 법념처(法念處)의 네 가지의 사띠(sati) 수행이다. 신념처(身念處)는 몸의 성질과 모습이 허공과 같다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즉 몸에 대한 마음챙김이다. 호흡의 수를 세는 수식관(數息觀)이 신념처에 해당한다. 이 신념처를 통해 나의 몸은 더러운 것으로서 집착할 것이 못된다고 깨닫는다.

수념처(受念處)는 몸에 어떤 느낌이 있을 때 이 느낌이 몸이나 몸 바깥에 있지도 않고 중간에도 머물지 않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즉 느낌(受)에 대한 마음챙김이다. 수념처를 통해 어떠한 느낌을 받아도 그것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으로 보는 안목을 기른다.

심념처(心念處)는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단지 고정된 개념일 뿐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즉 마음에 대한 마음챙김이다. 심념처를 통해 나의 마음은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끊임없이 변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마지막으로 법념처(法念處)는 중생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좋은 법도 좋지 않은 법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모든 것[法]에 대한 마음챙김이다. 법념처

를 통해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하나로서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중국 선불교의 참선법으로서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이 법념처에 해당한다.

사념처(四念處)는 염(念)자가 들어 간 말 가운데 다른 말로 사념주(四念住), 사지념(四止念), 사념(四念), 사념수관(四念隨觀)이라고도 한다.

## 밀교의 염송(念誦)

염(念)의 또 다른 용례로 염불(念佛)을 들 수 있다. 불보살의 모습과 공덕을 생각하면서 석가모니불이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과 같은 불보살의 명호(名號)를 외우는 것을 말한다. 흔히 어떤 일을 기원하며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을 외우는 일을 말한다. 그러나 대개 염불이라고 하면 불보살의 명호뿐만 아니라 불경(佛經)을 외우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염불한다고 하면 경전을 외우며 불공기도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좋지 않은 비유로 염불이란 말이 쓰이기도 한다. 같은 내용의 말을 자주 되풀이하거나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중얼거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인다. 염불의 나쁜 용례라 할 수 있다.

염(念)자가 들어 간 말 가운데 염불과 비슷한 말로 염송(念誦)이 있다. 마음속으로 불보살을 생각하고 불경(佛經)이나 진언(眞言) 등을 외우는 것을 말한다. 염불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염불과 달리 염송은 진언을 외우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진언염송이라고 하지 진언염불이라 말하지 않는다. 염송은 진언다라니를 외우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염송은 밀교의 삼밀수행 가운데 하나이므로 매우 중요한 술어라 할 수 있다. 입으로 진언을 외우고 마음으로 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염송의 종류를 말할 때도 사종염송(四種念誦)이니 오종염송(五種念誦)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염송은 그냥 입으로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진언을 관(觀)하면서 외워야 하는 것이다. 관(觀)은 바로 염(念)을 말한다. 그래서 밀교경전에서는 염송(念誦) 대신에 관송(觀誦)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그러므로 진언행자는 자신의 정수리 위에 옴마니반베훤이 있다고 관하고 끊임없이 옴마니반베훤을 외워야 할 것이다.

## 정성준 교수의 후기밀교

# 생기차제 초가행삼마지 중 심심유가



정성준 교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대일경』의 성립으로 이루어진 진언문의 탄생은 7세기 전후 방대하게 집적된 불교경전과 수행체계에 대한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나란대대학의 학장들은 출가승들이 팔만대장경의 두 배에 육박하는 인도 대승경전 전체를 섭렵하고 입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고민해야 했다.

여러 생을 걸쳐 불법을 만나 수행한다고 말하지만 다음 생에 인간의 몸으로 재생하여 불법을 성공적으로 만나려는 것은 장담하기는 어렵다. 밀교아사리들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

난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모소생의 몸으로 성불하려는 능률적인 불교수행을 밀교에 반영시켰다.

『대일경』은 『화엄경』의 계승자이다. 비로자나불의 일체지지와 신변, 보현보살의 행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수행이 진언문이다. 『금강정경』은 유가행의 입장에서 금강계수법을 마련하였고, 『비밀집회판트라』는 금강계만다라를 계승하여 법신·수용신·화신의 성취를 수행이념에 반영하였다. 이 모든 것이 백년 내외의 짧은 시간에 완성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인간의 정신과 육신을 연결하는 원리는 즈나나빠다가 완성한 미세유가에 담겨있다. 그러나 그 근본은 석가모니부처의 수식관과 사념처관으로부터 떠나지 않는다.

후기밀교의 수행에서 종자와 진언을 활용한 관상은 다양하고도 심오한 인간의 심리와 정각에 접근해가는 여정을 요약해 놓았다. 생기차제에서 법신과 수용신의 성취는 유가와 수유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화신의 성취는 심심유가, 즉 심오한 유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심심유가에서는 수행자는 자신의 몸

에 『비밀집회판트라』 만다라의 32존을 포치하여 관상한다. 『금강살타성취법』에는 “범속한 유정의 경계로서 온처계(蘊處界)의 순서에 따라 관상하여 [화신의 경계를] 안입한다. 이로부터 본래자성인 화신을 생기한다”라고 하였다.

『경합집』에는 심심유가에 대해, “지혜자성의 [법신]으로부터 유정의 경계를 성취한다”라고 하였다. 무형의 법신의 지혜로부터 유정을 구하기 위해 유정이 요구하는 불신을 보이는 것이다. 인도 후기밀교의 수행은 무형의 정신으로부터 3신의 불신을 반복해 수습한다. 동아시아에서 현교만을 공부하면 관념적인 3신의 성취가 현실의 수행체계로 실수되는 것에 대해 믿기지 않을 것이다.

『비밀집회판트라』의 제8분에는, “5온 등의 자성에 일체여래의 지혜에 의해 자신의 육신에 안치한다”라고 하여 심심유가의 관상원리를 소개하고 있다. 관상의 순서를 소개하면 5온은 곧 5선정불의 관상에 배대된다.

육신은 지수화풍의 4대로부터 이루어지며 이에 대해 4명비를 배대하여 관상한다. 감각을 구성하는 안이비설신의 다섯 영역은 5금강녀, 색성향미촉법과 관절, 혈관, 피부 등은 8보살을 포치하여 관상하고, 뒤이어 10분노존이 활동영역을 대치하여 관하는 순서가 이어진다.

생기차제에서 수행자는 유가차제로부터 시작하여 수유가, 심심유가에 이르기까지 법신·수용신·화신을 사유·중유·생유에 배대하여 관상한다. 인간의 육신마저 궁극적인 진리의 세계임을 자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깨달음의 세계를 인간의 삶과 현실사회에 실현할 것을 중용한다.

그 관념적인 수행원리는 현교에서도 다수 발견된다. 특히 『해심밀경』과 『열반경』을 중시하게 되지만 모든 교학과 수행원리는 석가모니부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다.

밀교수업을 즐겨듣는 학승들 가운데 테라바다의 스님들을 빼놓을 수 없다. 수업도중 심긋이 웃는 미소는 공금했



던 밀교에 대해 테라바다의 근본원리를 관통하는 쾌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불교연구가 자유로운 현대에 밀교연구의 열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 대승교학 가운데 『반야경』 만이라도 충분한 이해가 있다면 밀교는 저절로 받아들여진다. 테라바다의 교학에 능통한 스님들은 밀교를 거부하지 않는다. 테라바다의 교학은 연기법으로 이를 소화한다.

## 수인사 교도



## 포항 향토음식 전문점

# 다미룩

예약문의 010-7531-3786 010-5407-3796

### 다미룩 특별 과메기 판매!

● 과메기 10마리(20쪽) ₩28,000(2~3인)

● 과메기 20마리(40쪽) ₩42,000(4~6인)

(물어벌, 죽다, 마늘, 모듬, 김, 매추, 갖가지, 초강 3종)

### ※ 추가옵션

콜더액 5,000원 / 소창 5,000원

떡메떡 4,000원 별도

야채 1세로 추가시 10,000원

☎ 계곡 : 남명 356-05391771-13 박금화

저희는 포항 과메기만을 사용합니다.

종립 동해중 소식

학부모 대상 향기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종립 동해중학교(학교장 탁상달)에 테라피스트 1급 전문가사이며 1급 교 육치료사이신 강혜윤 강사를 특별 초 청하여 강연회를 가졌다.

본 행사의 근본 취지는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향기치료 강연회였다. 본 행사를 통해 학부모님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물로 행사를 만들어준 학교에 대해 매우 큰 감명을 받았다고 감사해 했다. 이번 특강은 미용과 건강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평소 부모님이 겪는 애환과 스트레스 해소 및 힐링을 위해 이루어졌는데 '에센스', '립밤' 만들기 초청 특강 행사였다. 식물성 오일과 플로럴 워터, 핫플러이더, 스킨비커, 온도계, 화장품 용기, 기능성 첨가물, 주걱, 알콜, 밀납, 아로마 오일 등 많은 준비물이 요구되는 행

사였지만 천연화장품 만들기 향기치료 프로그램은 매우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 강연회 중간에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자녀들과의 올바른 대화법은 물론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 지도 시에 상담자가 지켜야 주의할 사항, 바람직한 학부모의 역할, 학생중심의 진로지도 등에 대한 상담도 함께 곁들이면서 이루어진 행사라서 더욱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동해중=탁상달교장

손 안에 보이는 세상 News Finder

2021년까지 서울 고교·사립초 '무상급식' 확대

2021년부터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지금은 제외된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학교 유형(국립·공립·사립)과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1년 서울 공립 초등학교에서 처음 무상급식이 시행된 이후 10년 만에 초·중·고교 전체로 확대되는 것으로 1천 302개 학교 93만 여명이 무상급식 대상이 된다.

천406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지역 고등학교 급식단가 평균(4천699원)보다 15%(707원) 높다.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고교 학부모들은 연간 80만원가량의 급식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 고교생 15.3%(3만9천 354명)가 법정지원대상자 등으로 급식비를 지원 받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은 예산 문제로 내년엔 성동·동대문·종로·강북·도봉·동작·관악·강동·중구 등 9개 자치구 96개교 3학년(2만4천명)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내년도 고교 급식단가는 1인당 5

만원에 상한선을 두고, 서울지역 고교생 15.3%(3만9천 354명)가 법정지원대상자 등으로 급식비를 지원 받고 있다. 서울시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이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친 학생에게도 선별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지만(학생들이) 신청을 꺼려 지원실적이 매년 감소해왔다"고 설명했다. 국제중 무상급식은 해당 학교 소재 자치구(광진·강북구)가 참여하지 않아 내년에는 이뤄지지 않는다. 시와 교육청은 2021년까지 고교·사립초·국제중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분노사회를 치료하는 처방전은 '원활한 소통'

-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살인은 부도덕한 우리 사회 단면
- 최소한의 공동체 의식 필요, 불자들부터 자비심 나누길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비롯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영격적 행동 등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특히 강서구 PC방 피의자는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범죄 심리학자들은 한국사회의 '분노조절장애' 범죄가 도를 넘었다고 진단한다. 다양한 종류의 원인분석과 함께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있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그와 같은 사회를 만든 것은 나 이외의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공업(共業)의 수혜자이고 동시에 공업(共業)의 기여자들이기 때문이다. 다소 진부한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려는 윤리적 성찰이 무엇보다도 요청되는 작금의 현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더 나아가 부처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불자 이웃끼리라도 자(慈)와

비(悲)의 마음을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을 향한 적극적인 마음씀씀이를 의미하는 자(慈)와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극적인 마음나누기로 이해되는 비(悲)의 실천은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남들에게 갖는 작은 관심만으로도 충분한 것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차원에서도 안전시스템의 제도적 확립과 유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분노를 다스리는 힘의 원천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분노와 그로 인해 발생한 사건의 책임을 궁극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크게 그르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끔찍한 사건의 원인은 개인 인성의 문제로부터 사회의 구조적 모순, 정치적 미성숙, 시대적 환경의 변화 등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이고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부터 미시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필자의 입장에서 조금 색다른 시각의 제안도 해본다. 정보시대의 도래로 인

한 커뮤니케이션 구조 변동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에서 분노사회의 원인과 배경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인류 공동체의 기본 속성이다. 이로 인해 인류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과거 농경사회는 물론 산업사회에서는 대면 접촉이 주를 이뤘다. 사람들은 만나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대화하고 소통했다.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의 만남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 놓았다. 온라인 공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비언어적 요소와 사회적 실재함이 결여된다는 단점이 있다.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할 때 우리는 얼굴 표정이나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절제하면서 서로간의 관계를 유연하게 형성해갈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비언어적

요소가 적을수록 인간의 소통 행위는 더욱더 비언어적인 양상을 갖는다. 컴퓨터나 휴대폰 자판을 거쳐 이뤄지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상대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사람간의 심리적 거리를 증대시켜 비언어적이고 이로 말미암아 집단 간의 응집력을 약화시킨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보다는 개인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위계와 같은 집단규범적 요소가 약화된다. 사회집단 구성원 간에 형성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공동체는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작동할 때 건강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다. 인간적이면서도 분절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패턴과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분노가 아닌 인내와 관용의 확산을 추구하는 사회, 그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인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상의 균형을 잡는 일이 쉽지 않지만, 오프라인 공간이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 제 기능을 회복하도록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주일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장

남북, 적대행위 중지 地·海·空 완충구역 실행

11월부터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기동훈련, 정찰비행 등 남북 간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된다. 남북은 지상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km 안의 구역에서는 포병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을 하지 못한다. 군은 이 구역과 일부 중첩되는 파주의 스토리사격장에서 포 사격훈련을 중지하고, 대신 무건리 사격장에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은 MDL 일대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해 MDL 5km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하고,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평가방법 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km를 해상 적대행위 중단 수역(완충수역)으로 설정했다. 이 수역에서는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하도록 했다. 공중에서는 서부지역의

경우 MDL에서 20km, 동부지역은 40km 안의 지역에서 정찰기와 전투기의 비행할 수 없도록 했다. 서부지역 10km, 동부지역 15km 안에서는 무인기 비행도 금지된다. 우리 군은 군단급 부대의 무인정찰기 운용이 일부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중 완충구역에서는 전투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을 동반한 전술훈련도 금지된다. 한미 전투기들의 근접항공지원(CAS) 훈련도 전투기와 정찰기 대상 완충구역 이남에서 실시해야 한다. 군은 한미 연합공군 훈련 공역을 완충구역 이남으로 조정했다. 군사합의를 통해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 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홍범호 기자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10월 21일 ~ 11월 20일까지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지로번호:7668610 ●우리카:122-177171-13-104 ●예금주: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Table with 4 columns: Donor Name, Amount, Date, and Donor Name. Lists various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and dates.



절기 이야기

대설

삼일사주교남혜정사



어느새 가을의 종적을 지나 겨울이 다가오는 있다. 곧 창문 너머 소복소복 눈 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대설은 이 시기에 함박눈이 많이 내린다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대설은 재래 역법의 발상지이며 기준 지점인 중국 화북지방의 계절적 특징을 반영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반드시 이 시기에 적설량이 많다고 볼 수 없다.

대설은 소설과 동지 사이에 위치하며 24절기 가운데 스물한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이다. 시기적으로는 음력 11월, 양력으로는 12월 7일이나 8일 무렵에 해당하며 태양의 황경은 255도에 도달한 때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음력 10월에 드는 입동과 소설, 음력 11월에 드는 대설과 동지 그리고 12월의 소한, 대한까지를 겨울이라 여기지만, 서양에서는 추분 이후 대설까

지를 가을이라 여긴다. 특히 24절기 중 대설이 있는 음력 11월은 동지와 함께 한겨울을 알리는 절기로 농부들에게 있어서 일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농한기이기도 하다. 옛 중국에서는 대설로부터 동지까지의 기간을 다시 5일씩 삼후(三候)로 나누어, 초후(初候)에는 산박쥐가 울지 않고, 중후(中候)에는 밭이 교미하여 새끼를 치며, 말후(末候)에는 여지(荔枝: 여주)가 돌아난다고 하였다.

대설과 관련된 속담으로 “눈은 보리의 이불이다” 라는 말이 있다. 옛 선조들은 눈이 많이 내리면 눈이 보리를 덮어 보온 역할을 하므로 동해를 적게 입어 보리 풍년이 든다는 의미로 눈이 많이 오면 다음 해 보리농사가 풍년이 들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다고 믿었다. 농촌에서는 대설이 되면 우리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 간장, 고추장의 주재료인 메주를 콩을 이용해 쪄기 시작한다. 농경 사회에서는 음력 10월 중순을 넘어가면서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들어 띄우고 정월에는 장독에 소금물을 붓고 메주를 넣어 장을 담갔다. 장맛은 메주가 좋아야 하므로 이 시기에 메주는 심혈을 기용하여 만들었으며, 대설 기간에 농촌에 가면 구수한 메주 향을 맡을 수 있다.

겨울철에는 호박죽과 비빔밥이 별미이다. 호박죽은 호박의 은은한 단맛에 적당히 찰진 찹쌀가루의 맛이 입에 착착 감기는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한 음식이다. 옛날에도 대설 무렵에 늙은 호박으로 호박죽을 쑤어 먹었다고 한다. 또한, 호박은 위장을 보호하고 독소를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감기에 걸리기 쉬운 겨울에 좋은 음식이다.

비빔밥은 계절에 따라 재료를 조금씩 달리해서 만들어 먹는 우리의 전통 음식이다. 옛날에는 겨울나기를 대비해 말려둔 나물로 대설 무렵에 비빔밥을 해서 먹기도 했다. 밥을 고슬고슬하게 대접에 담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나물을 얹어 비벼 먹는 비빔밥은 속을 든든하게 해주어 추운 겨울에 먹기도 좋은 음식이다.

건강한 삶의 중요성

동의대학교 체육학과 신정택 교수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건강과 지성은 인생의 두 가지 복이다(메난드로스).  
병에 걸리기 전까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토마스 풀러).

최근에 같이 생활하는 직장 동료가 돌연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동료는 일 중독자로 불릴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가족은 물론 주위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은 챙기지 못하였고,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였다.

호한 상태로 정의한다. 건강은 신체, 정신 및 사회적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질병은 천개 가지지만 건강은 하나밖에 없다(L, 뵈르네)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 또는 결함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양

그러서, 우리는 건강을 꾸준히 관리해야 하며, 이는 행복한 삶의 기본이 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바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관리의 중요성

은 인식하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 관리하는 방법으로 좋은 음식(보약, 영양제)을 먹거나, 운동 및 여가활동 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스포츠 과학에서 제시하는 효율적인 건강관리 방법과 전략들은 매우 다양하다. 본 칼럼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건강관리 방법들 중에 공통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건강관리 방법

1. 적절한 수면/휴식을 취한다.

8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몸과 정신이 재충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가진다.

2. 자신의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보다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것이다. 자신이 통제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은 해결해가는 대처를 사용하고,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는 정서조절, 초연, 회피 등의 대처를 사용한다.

3. 균형 있는 식단과 식습관을 유지한다.

하루 3번, 균형 있는 식사를 한다. 식습관으로는 여유를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한다.

4. 좋은 일상생활 습관을 만든다.

승강기 대신 계단 걷기, 대중교통 이용시 서있기 등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린다.

5. 적절한 운동을 한다.

운동은 하루를 짧게 하지만, 인생은 길게 해준다. 효율적인 운동방법으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하여, 규칙적으로 참여한다(주 5회 이상, 1회 60분, 3달 이상, 운동 강도는 중상 정도). 추천 운동 : 30분 이상의 걷기는 세로토닌과 엔돌핀 분비량을 증가시킨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고, 번 돈을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신체가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해진 다. '항상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조심하며(음식), 항상 입으로 나오는 것을 조심하며(말), 건강하게 웃으면서 하

루하루 살아가면, 행복은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

덕광정사와 함께 四君子 배우기 20

梅蘭菊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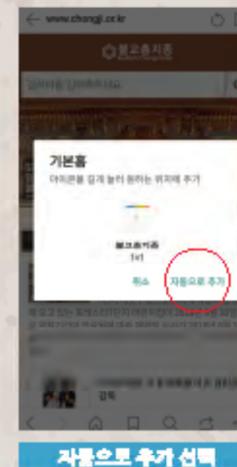
덕광(실보사 주교) 울산미술대전, 신라미술대전, 경남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수상

蘭 따라 그리기 VI



모바일 화면에 <불교총지중>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

- 1 검색 포털사이트 연결하기 (다음, 네이버, 구글 등)
- 2 검색창에 <불교총지중> 입력하기
- 3 <불교총지중>을 누른 후 상단 또는 하단의 '홈 화면에 추가'를 누른다.
- 4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버튼 누른다.



아름다운 삶

호수에 빠진 운전자 구한 강원체육고 학생들

“사람들, 영상 찍기만...”, 참다운 운동 선수



호수에 빠진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강원체육고등학교 수영부 학생들의 미담이다.

강원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체력 훈련을 하던 강원체육고 학생 최대준(19), 성준용(19), 김지수(19)군은 멀리의 암호 쪽에서 “광”하는 광음을 들었다.

이어 “사람 살려요”, “어떡해” 등 비명이 들려오자 이들은 곧바로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도착한 장소에는 사람들이 호수 주위에 모여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20여m 떨어진 곳에 물속으로 가라앉은 승용차가 보였고, 그 옆에 한 운전자가 가우우적거리고 있었다.

차가 트렁크만 보일 때쯤 학생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물속에 뛰어 들었다.

운전자를 물로 꺼내는 데는 1분이면 충분했다.

최근 등은 전국제전에서 메달까지 딴 강원체육고 3학년 수영부 학생들이다. 이들은 “상황이 급박해 본능적으로 뛰어 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성군은 “막상 들어가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지만, 수영에는 자신이 있었다”면서 “학교에서 평소에 생존 수영과 인명 구조를 배워 그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군은 “만약 뛰어 들지 않았다면 큰 후회가 남았을 것”이라며 “한번 낸 용기가 앞으로 선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최군은 “수영을 배우길 잘했다”며 “만약에 육상을 했더라면 도와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자를 구조하고 나서 학교 기숙사에 도착한 학생들은 “고생했다”며 서로를 격려했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당시 주위 사람들이 스마

트폰으로 영상을 찍기만 할 뿐 구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을 아쉬워했다.

이들은 “물속으로 뛰어 들려고 하자 누군가 만류했다”며 “수영선수라고 밝히자 제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구한 운동선수들의 미담이 값지게 느껴지는 것은 평소 운동하면서 터득한 여러 인간적인 가치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들이 학교에서 수영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봉사정신 등의 가치를 터득하지 못했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경우 잘 대처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엘지(LG)복지재단은 이 고교생 3명에게 ‘엘지 의인상’과 상금을 전달했다

소통하는 통신원,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통신원



11월 20일. 올해도 변함없이 수인사에서 김장 김치를 담아서 독거 어르신과 여러 단체에 김장 나눔의 행사를 진행했다. 봉사무소에 50 박스, 독거노인들에게 70 박스, 봉사요원들에게 20 박스, 노보살님에게 15 박스를 보내드렸다. 통신원=권순복

11월 4일. 서울경인지회 지회장 김은숙 보살님의 팔순 생신 잔치를 총지사 소담실에서 열어 참석하신 보살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팔순일이 수능시험일과 동일하여 앞당겨 축하했다. 이 자리에 중령 범공 대종사님과 총지사 주교 원당 정사님이 참석하여 더욱 자리가 빛났다. 통신원=최해선



11월 13일. 대구경북 교구 승직자 일동은 교구내 거주 기로스승들을 모시고 떡구원전을 다녀왔다. 가을 단풍과 함께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는 의미의 보은관람이었다. 통신원=권순복

11월 15일. 불교총지종 전국 사원에서 2019학년도 수능불공에 정각사 보살님도 손자, 손녀 합격을 기원하며 대학진학원 만 불공을 드리고 있다. 통신원=김윤경



11월 22일. 정각사 총지산악회는 스승님과 교도들이 함께 정기산악을 경남 의령·함안으로 들레길을 다녀왔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다. 통신원=한미옥



11월 29일. 서울경인 마니합창단(단장 최영아)은 불자성악가 4인 4색의 향연 공연에 참가했다. 마니합창단과 수원사 연합합창단이 합동으로 공연하였고, 마니합창단 지휘자인 김양희 선생님이 게스트로 출연하여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통신원=백귀임

10월 27일.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행정실장 법선(동해사 주교), 김진화 교무부장, 3학년 학부모, 동해중 어머니 불자회 회원 20여명이 포함 오어서, 경주 기림사-굴곡사 3사순례를 다녀왔다. 알록달록 단풍으로 몸과 마음이 힐링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었다. 통신원=동해중

**Q&A**

### 묻고 답하기

Q 전도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닌가요?

전도선언(傳道宣言)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 다섯 비구를 찾아가 초전법륜으로 아라한과를 모두 얻도록 합니다. 이후 야사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출가한 후 모두 아라한과를 얻었을 때 부처님은 그들에게 여러 지방으로 가서 진리의 가르침을 전파하라고 당부하는 것을 전도선언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이제 유행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천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라. 비구들이여, (설법할 때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논리 정연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법을 설하라. 그리고 진정으로 원만하고 청정한 범행을 설하라. 나 또한 법을 가르치기 위해 우루벨라의 세나니 마을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전도선언입니다. 우루벨라의 세나니 마을은 부처님이 과거 수행하던 곳으로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곳으로 부처님 자신이 그곳으로 가서 설법을 하겠다고 하신거죠. ‘이제 유행(遊行)하라’고 하신 것은 오늘날 말하는 전도를 뜻합니다. 부처님은 전도의 목적이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제

하기 위해 두 사람이 한 곳을 갈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혼자 다니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전도선언 이후 45년의 긴 세월을 걸쳐 열사의 모래바람, 뜨거운 햇빛에도 넓은 지역을 유령하며 전도사업에 종사했습니다. 열반하는 그 순간까지도 전도의 길에서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불교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적 특색은 바로 전도선언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신(神)적이고 초월적이며 영성적인 힘에 의한 전도는 불교에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깨달음(覺)의 자각에 의해 진리에 눈먼 이웃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굳은 결의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자비심이 불교 전도의 근본정신인 것이죠.

법일정사

## 총기 47년 금강합창제 이모저모

### 총지스케치

김홍균작가

### 어울림 소식

- ★ 총지사 주교 원당 정사는 신임 신정회장에 최영아 보살을 선임했다. 신임 최영아 회장은 11월 4일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 ★ 2019학년도 대학진학 학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불탑의 나라, 미얀마 순례기

삼밀사 주교 남혜정사



이제 붓다께서는 저희를 제자로 받아 주십시오.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귀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로 붓다와 그의 가르침에 귀의하는 제자가 생겼다. 이때 타웃사와 발리카 두 상인이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받아 미얀마로 돌아와 세운 탑이 쉐다곤 파고다이다. 쉐다곤 파고다의 탑 꼭대기에는 미얀마인이 염원과 서원을 담아 기부한 8만가지의 온갖 보석과 현금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76개뿔 상당의 대형 다이아몬드가 달려있다. 미얀마의 사원은 맨발로 들어간다. 이는 부처님 전에 겸손과 하심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맨발로 입장함으로써 평등함을 의미한다.

둘째날, 양곤에서 북쪽으로 600km 거리인 바간으로 향했다. 미얀마는



1천년전 불교의 중심지가 인도였다면 현재의 불교 중심지는 불탑의 나라 미얀마이다. 예전부터 꼭 가고 싶었던 곳, 설레이는 마음으로 삼밀사를 나서 김해공항으로 향했다. 오전 10시 30분 김해공항을 출발하여 베트남 하노이를 경유하여 오후 6시경 미얀마 양곤에 도착했다. 미얀마에서 처음 들은 말은 “밍글라바”이다. 밍글라바는 미얀마말로 “행운을 기원합니다”라는 의미의 인사말이다. 미얀마 성지순례의 첫 방문지는 미얀마의 자존심이자 세계 불교 최대 성지인 쉐다곤 파고다이다. 쉐다곤 파고다는 2500년전 조성되어 현재까지 황금 불탑의 모습으로 그 아름다움을 빛내고 있다. 경전에 이르

길 『타웃사와 발리카라는 두 상인이 육잡라 지방에서 붓다가 있는 곳으로 길을 가고 있을 때 천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벗들이여, 라자야타나 나무 아래에 붓다께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얼마 전에 깨달음을 얻은 분입니다. 가서 그분께 보리죽과 꿀을 바치고 경의를 표하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그 행동으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보리죽과 꿀을 가지고 붓다에게 가서 공손히 절한 뒤 붓다에게 공양을 올렸다. 두 상인은 붓다가 공양을 마친 뒤에 발우를 거두는 것을 보고 붓다의 발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간청했다. “저희는 붓다와 붓다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1948년 독립이후 오랜기간 군부독재가 이어져 도로 등 국가 기간시설이 미비하여 이동시 비행기를 이용해야 한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루와 함께 세계 3대 불교 유적지군으로 불리는 천년고도 바간은 미얀마 최고의 불교 유적지이자 관광지로 1천년 전에 건설한 2천5백개가 넘는 각양각색의 사원과 탑들로 이루어져 있다. 바간의 첫 번째 방문지 쉐다곤 사원은 미얀마어로 ‘황금 모래언덕에 세워진 사원’이라는 뜻으로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으며, 버마를 최초로 통일한 바간왕조에서 처음으로 만든 탑이기에 그 후에 만들어지는 탑들의 원형이 되어 미얀마 탑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화랑의 옆벽에 부처님의 일생을 담은 불화가 그려져있다, 신발을 벗고 경내로 들어서면 황금으로 된 화려하고 장엄한 탑의 모

습에 저절로 경외심이 든다. 범공 종령님 그리고 동참한 스승님들과 함께 양곤 쉐다곤 파고다에 이어 바간 쉐다곤 사원에서도 불공을 올린 후 황금단청을 자랑하는 톨로민로 사원, 한 왕의 애환이 담겨있는 마누와 사원, 만다라 형상의 구조이며 동서남북의 부처상이 아름다운 아난다 사원으로의 성지순례가 이어졌다. 이중 마누와 사원은 문왕조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민족의 왕국 타툰의 왕이었던 마누아는 불교경전을 요청한 아노라타 왕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왕국의 멸망을 자초하여 포로로 끌려와 지은 사원이 마누와 사원이다. 마누와 사원의 입구에는 사람키보다 더 큰 발우가 있고 그곳에 보시금과 쌀 공양을 받고 있다. 쌀 공양물은 작은 봉지에 나누어 담아놓아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한다. 미얀마에는 가난한

사람은 있어도 밥을 굶는 사람은 없다는 가이드의 말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셋째날 비행기를 타고 만달레이에 도착하여 약 한시간 정도 차로 이동하여 약 1천5백여명의 스님들이 수행하는 마하간다운 사원으로가 공양친견을 하였다. 미얀마는 불교국가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교를 믿으며 자비와 보시가 생활인 나라가 미얀마이다. 1천5백명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려면 약 1년전에는 공양신청을 해야 한다. 미얀마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평생에 한번은 가정형편에 따라 3개월, 6개월 정도 단기 출가를 한다. 미얀마 국민들은 자녀를 학교에 못보내는 것은 경제 사정에 따라 어쩔수 없다 여기지만 아들을 출가시키지 않는 것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여긴다. 미얀

마의 스님들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다. 이는 미얀마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와 교육사업을 스님들이 대신 하기 때문이다. 미얀마에서 정식 승려가 되려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승려고시에 합격해야한다. 승려고시 과목에는 영어도 포함되어 있어 영어를 하지 못하면 정식 승려가 될 수 없다. 미얀마의 스님들은 미얀마 국민뿐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교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종조이신 원정대성사께서 왜 대한불교 총지종이라 하지 않고 불교총지종이라 종명을 정하셨는지 그 큰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

넷째날 해호로 이동하여 인레호수에 거주하는 수상가옥을 방문하여 미얀마의 다양한 민족들의 생활을 둘러보고 저녁에 범공 종령님과 동참 스승님들이 모여 미얀마 성지순례에서 보고 느낀점에 대해 발표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섯째날 양곤으로 돌아와 까비에 파고다에서 부처님과 아난다존자, 목련존자의 진신사리를 친견하고 세분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불공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간절하게 서원을 빌었다. 마지막으로 67m 길이의 차욱타디 와불을 친견 후 5일간의 미얀마 성지순례를 마치게 되었다.

“상구보리 하회종생” 스승의 역할이 무엇인지 미얀마 성지순례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나의 가슴에 다시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스승으로서의 깊은 사명감을 안고 한국으로 돌아간다. 돌아와서 해야할 일이 많아졌다.

